



9

197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8. 9호

(루게 371)



◆◆◆◆◆◆◆◆ 차 례 ◆◆◆◆◆◆◆◆

우리 나라 국장과 국기에 깃든 이야기.....	4
위대한 수령님 모신 영광의 나라여 !	15
빛나는 강산, 성스러운 조국이며	16
누리에 빛나는 평양	17
어머님 걸으시는 길우에	19
주체의 기치따라 30 년 !	20
잊을수 없는 그 나날	23
다듬은 말	24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25
가슴속에 샘솟는 간절한 소원	26
영 생	27
숭고한 추억	30
내가 사랑하는 사람	34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창작되던 때의 몇가지 이야기	40

영원히 공화국 기발아래	42
유치원 창가에서	43
맑은 하늘 우러르며	44
꽃시절이 왔구나	45
공장대학정원에 밤비는 내리고	46
만경대에 드리는 월계관	47
오직 한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주석께 감사를!	
오직 한분 고무적인 령도자 김일성 주석께 영광을!	47
조국과 조국애	49
붓을 들고 포화속을 달려	53
온 세상은 태양을 노래한다	55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주체의 조국에 대한 심장의 노래	60

우리 나라 국장과 국기에 깃든 이야기

김 주 경

올해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돛을 뜻깊게 기념하게 됩니다. 이 경사스러운 민족적명절을 맞는 우리 모두는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표장이며 상징인 국장과 국기를 깊은 감회에 잠겨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존엄있게 빛나는 이 국장과 국기와 더불어 지난 30년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왔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찬 공화국의 국장과 국기를 높이 추켜들고 우리의 혁명적민주기지를 굳게 다지였으며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고수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군용사들은 그 가렬한 전쟁의 나날, 싸우는 고지마다에서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조국을 목숨으로 지켜냈으며 전후의 어려운 시련의 나날에도 우리의 건설자들은 이 영광의 기치를 펄펄 날리며 혁명의 수도-평양을 비롯한 수많은 도시와 마을들을 웅장하게 일떠세웠습니다.

우리 인민은 또한 이 국장과 국기밑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천리마의 나라를 일떠세웠으며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러보는 끝없이 룡성변영하는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를 이 땅우에 찬란히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도 우리의 국장과 국기를 가슴속에 깊이 아로새기고 공화국의 룡성발전에 끝없이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굴함없는 투쟁을 전개하고있으며 60만제일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공민들도 우리의 국장과 국기, 이 영광의 기치아래에서 공화국공민의 당당한 권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인민과의 친선단결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이 우리 나라 국

장과 국기를 높이 추켜들고 우리의 혁명위업을 지지하여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술단들이 다녀온 그 모든곳에, 우리의 체육단들이 다녀온 그 모든곳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마련하여주신 오각별 찬란한 람홍색공화국기발이 하늘높이 휘날리였으며 우리의 문화사절들과 체육의 대표들은 이 기발밑에서 주체의 예술, 주체체육의 위력을 온 누리에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국장과 국기, 그것은 누리에 빛나는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표장이며 상징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이 국장과 국기를 우리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켰으며 이 땅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대변영의 시기를 열어놓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국장과 국기를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있으며 그렇듯 찬연한 나라의 국장과 국기를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께 마음속깊이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글에서 지금으로부터 30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신 그 력사의 나날에 그이께서 어떻게 우리의 국장과 국기를 마련하여주시였는가에 대하여 적으려고 합니다.

X X

우리 인민은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자기의 력사에서 그 어느 한 시기에도 오늘처럼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지니고있는 국장과 국기를 가진적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자기의 국가와 함께 그의 표장과 상징으로 되는 국장과 국기를 가져보았으면 하는것은 지난날 나라 잃고 망국노의 쓰라린 생활을 강요당하였던 온 겨레의 민족적 숙망이었습니다.

때문에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이 세기적숙망을 깊이 헤아리시고 공화국의 창건을 준비하시면서 국장과 국기 제정사업을 몸소 지도하여주시었습니다.

1947년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는 사업을 발기하시면서 그 제정위원회를 내오도록 하시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정치적인임에 의하여 과분하게도 이 위원회의 한 성원으로 되어 국장과 국기의 도안을 작성하는 사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국가의 사명을 체현하고있는 공식적표장인 국장과 국가의 자주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기발인 국기를 제정하는 그 중요한 사업에 저를 불러주시다니.

정말 저에게는 말로는 형언할수 없는 너무도 분에 넘치는 영광이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를 새조선의 혁명적미술인대오에 세워주신것만 해도 분에 넘친데 이제 나라의 국장과 국기의 도안을 작성할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시니 어버이수령님의 그 높으신 신임에 목이 메여오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감격에 접한것은 저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미술가들이 국장과 국기의 도안작성을 맡은 저의 일을 자신들의 영예로 여기고 진심으로 고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미술가들의 고무는 그 자체에 머물렀을뿐입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우리 미술가들중에는 우리나라의 국장과 국기를 어떻게 도안해야 할지를 짐작이나마 할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그때까지 해방된 새조선의 모습을 그린 이렇다할 그림 하나 똑똑히 내놓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국가의 국장과 국기를 그려내기에는 너무도 저의 정치실무적수준이 낮았습니다.

과업은 영예로우나 능력은 매우 어리었습니다. 일은 처음부터 어려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저 역시 국가나 국장에 대한 보통상식도 가지지 못한 처지에 있었기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막연히 국장과 국기라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림으로 나타내는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리상이 담겨져야 한다. 그러면 그 리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건국로선과 그때까지 나온 우리 당의 정책들을 연구했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창건될 공화국의 표상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면적에서 몇가지 선과 색깔로 나라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린다는것은 애당초 생각한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다른 한편 저는 국기와 국장에 대한 일반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국기와 국장이 실린 출판물들을 수집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안에 대한 조예도 넓히려고 노력했고 색채학도 연구했습니다.

저는 먼저 국기의 도안을 여러모로 구상해보았습니다.

이렇게도 해보았습니다. 즉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이제 하나의 통일적인 민주주의중앙정부를 가진다. 그러니 국기는 하나의 바탕색을 가지는것이 어떤가, 그러면 그 한가지 색은 어떤 색깔이 좋은가. 색채학적리론에 따라 몇가지 색을 선택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실현될수 없는 《구상》을 하며 며칠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국장과 국기 도안을 진척시키지 못하고있는 사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국장, 국기제정과 관련한 총적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 국기와 국장은 어느 나라것과도 다른 완전히 새롭고 조선적인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 국기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오랜 기간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이 깃들어있게 하며 조선인민이 당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통일독립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 몸바쳐 싸우려는 애국적열의와 혁명승리의 불패의 위력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장에는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이 당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우리 조국의 완전자주독립과 장래 번영과 진보를 위하여 굳세게 싸워나간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과 함께 강력한 현대적민족공업발전과 선진적농업발전을 이룩할 찬란한 전망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실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는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던 국장과 국기 도안작성의 총적방향을 환히 밝혀준 강령적지침이였습니다.

저는 교시원문의 자자구구를 외울수 있게 읽고 또 읽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저의 눈을 확 띄우게 해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장과 국기에 담아야 할 내용의 첫자리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놓으시였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창건될 우리 공화국정권의 근본을 밝혀주시고 국장과 국기의 내용구성에서 올바른 대를 세울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다음에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뿌리를 둔 해방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그 승리의 전망을 제시하여주심으로써 도안에 담아야 할 사상적구획이 명확하면서도 일관성을 찾게 하시였습니다.

즉 우리 공화국정권의 영광스러운 전통, 보람찬 오늘의 투쟁, 빛나는 미래, 이렇게 담아야 할 내용이 명백한 구분을 가지면서도 그 모든것이 통일되어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도안실천에서 명확한 구획을 짓게 하며 그러면서도 그 구획마다에 깊은 사상이 깃들게 할수 있게 하여주었고 그것은 또한 하나의 통일성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접하면서 구도학, 색채학에 그 어떤 조예가 있어도 그것이 위대한 사상과 결부될 때라야만 비로소 색채학과 구도학이 국장과 국기 도안작성에 실질적으로 써먹게 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는 국장과 국기에 담아야 할 내용과 함께 국장과 국기를 도안하는데서 지켜야 할 근본 립장과 방법이 밝혀져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국기와 국장은 어느 나라것과도 다른 완전히 새롭고 조선적인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벌써 그 첫줄로부터 저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장과 국기를 이것저것 뒤져보며 갈피를 못잡던 자신이 더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것과도 같지 않는것, 완전히 새롭고도 조선적인것, 이 문제를 두고 저는 오래도록 생각하였습니다.

자주적인 국가의 표장이며 상징인 국장과 국기를 도안하는데서 지켜야 할 근본립장은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립장인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고유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만큼 민족적특성이 옳게 구현되어야 할것이였습니다.

참으로 완전히 새롭고도 조선적인것을 그릴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는 그 얼마나 독창성으로 하여 빛나는것입니까.

저는 국장, 국기 제정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충실히 옮겨놓을 때만이 도안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음을 깊이 느끼었습니다.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한자한자가슴에 깊이 새겨 거기에 담긴 깊은 뜻을 도안지에 옮겨나가기에 힘썼습니다.

저는 국기도안작성에 계속 달라붙었습니다.

사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에는 국기에 담아야 할 모든 사상적내용과 방법이 명백히 주어져있었으며 그이의 교시를 깊이 연구한다면 그로부터 구도도, 색조도 다 나오는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의 진수를 깊이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도안을 옳바르게 할수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구성안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러나 제판에는 팬찮게 도안되었다고 생각한것도 하루밤을 지나고나면 자신으로도 너무나 미숙함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례를 들면 이렇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즉 기폭을 세개의 3각형이 되게 나누어 그중의 가운데 3각형을 붉은색으로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3각형은 기대의 반대쪽에 꼬리가 가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두개의 3각형은 우와 아래에 엇바꾸어 조립식으로 배치하고 이것을 푸른색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붉은색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피흘려 싸운 항일선렬들의 높을 애국주의정신과 해방후 그를 이어받아 새 조국건설에 나선 우리 인민의 애국적열의를 상징하려 하였으며 푸른색은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을 상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안은 여러가지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례를 들면 붉은색은 항일선렬들의 애국주의정신과 그를 이어받은 우리 인민이 새 조국건설에서 발휘하는 열의를 상징하는것이라고 하였는데 전체 기폭의 2분의 1도 못되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비추어보면 이 문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인데 전체 기

폭에서 2분의 1도 못되는 좁은 면적으로 상징하였으니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에 대한 문제가 과소평가된 과오를 범한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기제정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연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때문에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자로 하여 국기의 내용구성을 바로잡아나갔습니다.

국기제정과 관련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에 비추어보면 항일투사들의 애국주의정신과 그를 이어받은 해방된 우리 인민이 새 조국 건설에서 발휘하는 애국적열의를 상징하는 문제는 국기 내용구성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에 근거하여 항일투사들의 애국주의정신과 그를 이어받은 해방된 우리 인민이 새 조국 건설에서 발휘하는 애국적열의를 상징한 부분인 붉은색 부분을 기폭전체의 6분의 4가 되게 하고 그것이 국기에서 제일 많은 넓이를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도 3각형이 아니라 네모나게 바로하였습니다.

실로 국기의 내용을 규정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실지로 국기의 색조와 넓이, 모양을 제시해주고있었습니다.

물론 국기의 다른 부분도 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로부터 출발하여 도안되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에는 우리 나라 국기는 조선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기가 조선적인것으로 되자면 우리 인민 교유의 민족적특성이 구현되여야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저는 조선민족의 민족적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결백성과 근면성 특히는 력사적으로 애국적지지가 강한데 류의하여 이에 부합되는 빛인 흰색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흰색은 기대쪽에 있는 동그라미와 붉은 폭의 아래우에 놓인 두줄기의 선에 리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우리 민족이 수천년의 오

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이라는 것과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슬기롭고 근면하고 애국적이며 용감하고 강의한 투지를 가진 굴할줄 모르는 영웅적인민이라는 것이 표현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에는 국기에 조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를 위해 평행된 두개의 흰줄이 표시되었습니다.

즉 선은 끝이 없다는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영원토록 번영한다는 것이 상징되었습니다.

국기제정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는 일찌기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 대하여 언급되어있으며 금후 조국의 통일독립과 번영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열의를 표현할데 대해 지적되어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이 일제와의 투쟁을 즐기치게 벌려 그를 타승한것처럼 일제를 대신하여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를 몰아내지 않고는 조국의 통일독립도 장래 번영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련결되어있습니다.

이로부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뭉쳐 억세계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념원이 우리 국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색채학적리론에 기초하여 기발의 아래우에 있는 두개의 폭에 푸른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흰 동그라미안을 그대로 비여두고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무슨 표식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였습니다.

저희들이 국기초안을 일정하게 추진시켰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있음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도안중에 있는 국기초안을 보아주시었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그 시험도안을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셨다는 말을 전해들었을 때 저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과분하게 치하하여주시면서 국기의 흰 동그라미안에 무엇을 넣겠는가 더 연구해보자고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본바탕만은 이대로 해도 좋겠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고무의 말씀을 전달받은 저의 심장은 한없이 높뛰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아주신 그 국기도안을 완성하기 위하여 저는 생각게 또 생각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흰 동그라미안에 백두산을 그려넣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복잡하여 몇발자욱만 떨어져보아도 눈에 잘 띄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 생각에는 아직 천지를 인 백두산의 그림이 도안화되지 않은데서 그렇게 복잡해보이는가 해서 간략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도안의 복잡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단순한 그림을 넣어본다고 하면서 해를 그려보았습니다. 원래 동그라미속에 또 동그라미를 넣어보니 그것이 해인지 무엇인지 확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또 그보다 작게 그려보고 거기에 붉은 색을 칠하니 먼데서 보면 너무 작아서 해를 상징한 자그마한 붉은 원은 흰바탕에 흡수되어 멀리서 보면 그 동그라미속에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보였습니다.

과연 이 흰 동그라미속에 무엇을 그려야 하는가.

무슨 물체에 어떤 의의를 부여하며 그 색조는 어떤것을 써야 할것인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였으나 신통한 묘안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였습니다.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고 당시 당과 국가의 요직에 잠입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이 흰 동그라미를 노리고 악랄하게 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들은 흰 동그라미안에 보습을 그려 넣자고 터무니없는 소

리를 하면서 그래야 《조선적》이라고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보습이라는것은 발갈이에 쓰는 낫은 농기구인것만큼 그것을 국가의 상징인 국기에 그려넣자는것은 낫은 봉건적농업국가로 되돌아갈것을 고집하는 반동적이며 복고주의적인 책동이었습니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너무도 황당하였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그 궤변에 쓴웃음을 지으며 냉대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자들은 더는 보습을 넣자는 열빠진 소리를 내놓고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다 하고 놈들의 궤변에 실물로써 타격을 줄 그림은 무엇인가.

저는 앞으나 서나 집으로 가는 길에서나 언제나 그 흰 동그라미안에 무엇을 그려넣을가 하는 한가지 생각에 잠기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울고싶도록 안타깝던 그 일은 지금도 잊혀 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으나 종시 국기의 흰 동그라미안의 표식을 해결하지 못한채 저는 국장 초안작성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국장제정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는 국장도안의 내용과 형식이 명백히 주어져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국장도안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연구한다면 국장도안도 성과적으로 될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진지하게 연구하였습니다.

물론 이때도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의 진수를 파악하지 못하여 인차 원만한 도안을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연구하면서 그 구절구절에 담긴 뜻을 새겨나가며 그것을 도안으로 표현할 방도를 찾아나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는 당의 두리에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에 대해 강조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거듭 연구한 끝에 붉은 띠를 테두리로 하는 타원형의 국장이 이루어지게 하

고 이것을 당의 두리에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과 그 힘의 영원성을 상징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벼이삭을 붉은 띠로 땅아 좌우에 테두리를 하고 그 한가운데 용광로를 그려넣어 공업과 농업 발전, 로동동맹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사상에 부합되지 못한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개선안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국장과 국기 도안작성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원만히 밀고나가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심한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일이 흘러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화국의 창건준비와 인민경제를 지도하시기에 하루에도 수많은 일군들을 만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장과 국기도안작성사업을 친히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였습니다.

1948년 1월중순 어느날이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 밤이 되었는데 한 일군이 와서 김일성장군님께서 곧 우리들이 일하는 청사에 오신다고 알려였습니다.

우리들은 서둘러 어버이수령님을 모실 준비를 하였습니다.

얼마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웃음을 담으시고 방에 들어서시였습니다. 대변에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자나깨나 뵈옵고싶었던 어버이수령님을 맞이한 저의 가슴은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한없이 들먹이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게 된 끝없는 행복감에 휩싸인 저는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습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수고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선 자세로 있는 저의 어깨를 눌러 의자에 앉게 하시고 자신께서도 맞은

편 의자에 앉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제가 일어서서 답변을 올릴 때마다 매번 이렇게 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어 국장초안을 보아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국장초안을 세심히 살펴보시다가 국장의 테두리를 버이삭으로 하니 좋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농업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니 좋다고 거듭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가 국장초안을 다시 보시고나서

《벼알을 몇개로 하였습니까?》

라고 물으시였습니다.

이때 저는 일어난 자세로

《제일 잘된 버이삭에는 110 알이 달린다고 하여 랑쪽에 합하여 110 알이 되게 그렸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드리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저의 말을 들으시고 나서 앞으로는 한이삭에 200 알도 훨씬 넘을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때에 가면 지난날 우리의 농업이 얼마나 뒤떨어졌던가를 잘 알수 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 앞으로 우리는 한이삭에 200 알이 넘도록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어떤 문제를 두시고도 그것을 우리 인민들의 보다 유족한 미래의 생활과 결부시키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때 벌써 고도로 발전된 선진적인 농촌경리를 구상하시였으며 그 구상이 반드시 실현될것을 확신하고 계시였습니다.

사실 그후 이 땅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에 따라 해마다 알곡수확이 계통적으로 늘어나 오늘에 이르러는 30 년전과는 대비도 안되는 엄청난 수확고를 거두고있습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에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행복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넘쳐있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 자리에서 지난날 일제침략자들이 우리 나라 농촌을 강도적으로 략탈한 죄악상에 대하여도 상세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난날 우리 인민들이 당한 수난의 역사를 그렇듯 가슴아프게 회고하시면서 그러한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가장 행복한 생활을 가져다줄수 있는 사회제도를 마련하여주시기 위해 심려하시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품모앞에 깊이 머리 숙어졌으며 가슴뜨거운 감격으로 하여 그득히 피어오르는 눈물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 국장과 국기에는 언제나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이 깃들 어있게 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였습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국장의 초안이 테두리만이라도 된것을 그렇듯 소중히 여겨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국장의 테두리는 이대로 해도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테두리안에 있는 그림이 문제라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용광로는 로동계급과 공업발전의 전망을 표현한것이라고 볼수 있을것이나 이것으로써는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우리 당의 정치로선이 뚜렷하게 나오게 해야 하겠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강력한 현대적인 공업을 발전시키며 농업도 선진적인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는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과 함께 강력한 현대적인 공업발전과 선진적인 농업발전의 성과를 약속하는 전망이 뚜렷하게 표현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국장초안은 처음 시도한 것만큼 우선 그대로 잘 정리해보고 앞으로 계속 연구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

기초안의 흰 동그라미안도 완성할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로동제급을 핵심으로 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자신의 힘에 의하여 수행해야 할데 대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말씀하시였습니다.

사실 국장과 국기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으로 되는만큼 저로서는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 우리 조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빛나는 전망에 대하여 잘 알고있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는 너무도 어리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저의 이러한 형편을 깊이 헤아리시고 국장과 국기를 도안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이 땅에 태어난 한 혁명전사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에 대하여 그렇듯 상세하고 알기 쉽게 오랜 시간에 걸쳐 깨우쳐주신 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날 밤이 퍼그나 깊어서 떠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우리 인민은 얼마나 행복한가.)

저는 이런 감격속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자리를 뜨신후에도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일줄 몰랐습니다.

정녕 이날은 제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 모든것을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인민적 품모를 더욱 가슴깊이 체득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기대는 컸으나 너무도 어린 저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는 이에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 만족한 도안을 보여드리지 못한 저의 마음은 몹시 안타까왔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완성하려고 모든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기의 흰 동그라미안에 무엇을 그려넣을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가운데 시일은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마음은 못견디게 초조해졌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그해 2월초순 어느날이었습니다.

그처럼 저의 가슴을 태워오던 국기도안문제가 마침내 단숨에 풀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저는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습니다.

국기초안의 흰 동그라미안에는 오각별을 넣는것이 좋겠습니다. 이 별은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의 령도하에 조국의 통일독립과 장래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빛나는 승리의 전망을 상징하는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별은 국장의 윗부분에도 넣는것이 좋겠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룩하시였으며 이제 창건될 우리 공화국정권이 전면적으로 이어받을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상징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조국의 통일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휘황찬란한 전망을 상징하는 별!

저의 가슴은 한없는 기쁨으로 설레였습니다.

사실 흰 동그라미안에 무엇을 넣는가 하는 문제는 국기의 핵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는가 하는 문제로서 국기도안작성에서 관건적문제였습니다.

때문에 당안에 잠입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도 여기에 눈독을 들이면서 보습을 그려넣으라고 하며 집요하게 책동하였던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국기의 전반적성격이 어떤 지경에 떨어질 것인가를 누구나가 짐작할수 있는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오각별을 흰 동그라미안에 그려넣게 하심으로써 우리 국기의 운명을 이러한 위험에서 건져주셨을뿐만아니라 우리 국기의 전반적성격을 가장 혁명적인것으로 되게

하시었으며 구도학적으로도 완벽하게 하여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여도 이 흰 동그라미안에 그려넣을 수 있는 표식은 오직 오각별뿐입니다.

왜냐 하면 흰 동그라미안의 위치는 기폭의 우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니며 기대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갈 때 흰 동그라미안에 상징되는 표식은 전체 기폭의 앞쪽에 있게 됩니다. 이 흰 동그라미안에 있는 표식으로 상징되는 사상을 따라 기발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흰 동그라미의 위치는 항도적인 위치인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과 우리 인민의 휘황찬란한 전망으로 상징되는 오각별을 그려 넣게 하시었으니 그것은 천만번 정당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오각별은 오직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만이 주실수 있는 혁명의 별이었습니다.

오각별! 이 귀중한 별이 우리에게 어떻게 마련된것입니까.

이 찬란한 오각별은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의 준령을 넘으시며 일제를 무찌르는 그 장구하고도 간고한 피어린 투쟁을 거쳐 우리 인민에게 가져다주신 귀중한 별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그 소중한 오각별을 국기도안에 그려넣자니 견잡을수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흰 동그라미안에 오각별을 정성껏 그려넣으니 기발이 그대로 나뭇기스듯 살아움직이는것이었습니다.

저는 람홍색 기발속에 빛나는 별을 다함 없는 감격속에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슬기로운 조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국기는 바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하신 가르치심에 의하여 국장도안작성사업도 바야흐로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은것은 국장의 테두리안의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책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기의 흰 동그라미안에 보습을 넣게 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자들은 이번에 그 보습을 다시 국장에 넣자고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복궁같은 리조시기 궁궐을 그려넣으라고 얼빠진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표식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로선과 아무런 인연도 없었습니다.

국기의 흰 동그라미안에 보습을 넣자는것이 나 본질상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감행하려는 최악이 더 집요하고 악랄하였을뿐입니다.

놈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일부 불건전한 화가들을 매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습이요, 궁궐이요 하는 따위를 그린 도안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격렬한 론쟁이 계속되는가운데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해 6 월에 다시금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 협의회를 여시고 남북조선총선거를 실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체없이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습니다.

하여 공화국이 창건될 그날은 눈앞에 다가오고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공화국의 국기와 함께 국장도 하루빨리 가장 훌륭한것으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국장안의 그림을 어떻게 정리할것인가.

이때까지도 국장의 테두리안의 그림문제를 두고 론쟁은 계속되었으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도 음으로 양으로 더욱 집요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서로가 각양한 주장을 들고나와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모든 혼잡상을 단번에 가셔내는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공업과 농업을 발전 시키는데 있어서 전력은 동력으로 됩니다. 공업도, 농업도 전력이 없이는 발전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를 넣는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발전소로 하면 색조도 아름답게 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접하게 되자 저의 안타깝던 심정은 대변에 후련하여졌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의 구절구절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교시에 담겨진 심오한 뜻을 도안속에 그대로 새겨넣기 위하여 있는 정성을 다 기울이였습니다.

국장의 테두리안에 발전소를 그려넣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가슴에 새길수록 그 뜻이 깊어지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웅장한 수력발전소를 그려넣도록 하심으로써 강력한 중공업에 의거하고있는 자립적인 현대적인 공업과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을 상징하도록 하신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발전소의 위용을 그려넣으니 국장은 존엄있게 보였고 색조도 아름다와졌습니다.

다음에 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신 찬란한 오각별을 국장의 옷부분에 그려넣었습니다.

이로써 국장의 도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력한 중공업에 의거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과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을 상징하는 수력발전소!

이것을 그려넣음으로써 국장의 사상에술성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장의 테두리안에 발전소를 그려넣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국장도안작성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였습니다.

도안전문가들도 미처 예견치 못했던 그런 조화미가 갖추어졌으며 국장의 전반적색조가 맑고 아름다와졌습니다.

밝고 아름답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행복하고 명량하며 희망에 넘친 우리 인민의 생활을 상징한다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인민에게 밝고 행복한 생활을 가져다주시기 위해 그렇듯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 국가의 표장인 국장을 그 누가 이렇듯 밝고 아름답게 하여줄수 있었겠습니까.

밝고 아름다운 우리의 국장에는 오직 인민에게 무한한 행복과 기쁨만을 안겨주시려 한평생을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이 깃들어있는것입니다.

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밝고 웅장하며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수력발전소에서 오래도록 눈을 땔수 없었습니다.

그 발전능력에서나 규모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임을 시사하는 수문들과 언제, 금방 그 장쾌한 울림이 들리는듯한 폭포같은 물줄기, 그 모든것은 자립적민족공업의 비할바없는 위력을 과시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안에 그득히 고인 수원에서 조국의 모든 자원이 인민을 위해 돌려지는 새조선의 모습을 보았으며 우뚝 솟은 송전탑과 송전선을 통해 이와 잇닿은 현대적인 공장들, 발전된 농촌경리 그리고 고충건물이 즐비한 웅장한 도시들, 아담한 문화농촌을 그려보았습니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수력발전소의 도안을 놓고 우리는 이 땅에 이룩될 위대한 전변에 대해 끝없는 이야기를 펴나갈수 있을것입니다.

저는 국장과 국기도안작성을 끝마치면서 우리 인민에게 가장 존엄있고 빛나는 국장과 국기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각일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될 력사의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선거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으며 그해 8 월 남북조선총

선거는 전체 조선인민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서 승리적으로 결속되었습니다.

남북조선총선거의 빛나는 승리에 기초하여 1984년 9월 평양에서는 역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열렸습니다. 9월 8일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초안을 채택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엄숙히 진행되고있었습니다.

헌법초안의 조항들이 대의원들의 한결같은 찬동을 받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국장과 국기의 초안이 상정되었을 때 전체 대의원들은 열화같은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이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전체 조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것이 선포되자 또다시 장내를 뒤흔드는 우뢰와 같은 박수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칠줄 모르는 박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주석단벽면 가득히 대폭의 공화국기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그 기발을 바라보던 대의원들을 비롯한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기쁨과 감격에 겨워 《야!》하는 감격의 웨침과 함께 만세의 환호성을 울리었습니다.

저도 목청껏 웨쳤습니다. 줄줄이 흘러내리는 눈물도 잊고 《만세!》 《만세!》하고 목청껏 환호성을 울렸습니다.

우리 조국의 역사에 찬란히 새겨져 영원히 빛날 1948년 9월 9일, 이 역사적인 날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계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날 조국의 푸른 하늘에는 오각별 빛나는 람홍색 공화국기발이 펄펄 휘날리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손에 우리의 국기를 들고 이날의 감격을 목청껏 노래불렀습니다.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
산천도 노래하라 이 날의 감격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공화국기발이 처음으로 조국의 창공에 나뭇기는 그 영광의 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이 찬란한 혁명의 기치, 영광의 기치를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 **김일성** 동지께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온 겨레는 이날 이 나라 반만년력사우에 처음으로 높이 휘날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발을 물기어린 눈으로 오래오래 바라보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할 굳은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X X

영원토록 번영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표장이며 상징인 국장과 국기, 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이 세상에 태어나 혁명과 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과 함께 자랑스러운 한길을 걸어온 우리의 국장과 국기!

참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장과 국기가 높이 솟은 그 모든곳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고 영광이 빛났습니다.

이 영광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우면 승리하고 건설하면 기적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 영광의 국장과 국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이 땅에 남먼저 휘황한 공산주의락원을 건설할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과 국기를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은 끝없이 룡성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길이 전하여질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 오신 영광의 나라여 !

오 영 제

그대의 산이
그대의 들이
이 가슴에 그리도 정다운은—
우리 수령님 인민 위해
그토록 한마음 기울이시여
그대를 가꾸어주시여서여라

그대우에 새겨진
한줄기 오솔길
그대우에 자라는
한그루나무, 한포기의 곡식이
이 가슴에 그리도 소중한은—
인민 위해 한평생을 걸고 걸으시는
거룩한 그 자욱이 깃들어있어서여라

조국이여
수령님 모신 영광의 나라여
수령님의 미소로
그대의 땅은 밝고,
수령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은 빛나라

아, 서른해
승리의 해들이 쌓이고
행복의 나날들이 고인 언덕우에
조국의 재부는 무겁게 실려 설레이고
사시절 피는 불노을속에
억만가지 인민의 복리가 사뭇치며
쇠물이 익는다
조국이여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웃음과 노래를 준 나라
삶의 환희와 보람을 안겨준 나라여

설음만이 무겁게 내려덮였던 그날엔
우리 수령님 눈보라속에서
20 성상 그대를 안고 오셨고
해방의 봄을 안고오신 그날로부터
우리 수령님 심혈로 꽃피워오신
그대의 산과 들

불행이면 크나큰 불행이
시련이면 가혹한 시련이
그토록 모질게 그대몸을 휘감았건만
수령님의 의지로 싸워왔고

수령님의 사상으로 승리한 나라

하나의 강줄기도
수령님의 뜻을 따라 흐르고
한이삭의 낱알도
수령님의 뜻으로 영글어
이 세상 가장 빛나는 주체의 진리를
행복의 락원으로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땅

자랑하노라
이 땅이 지닌 힘
이 땅이 지닌 권리와 자유
하나같이 인간을 높이 받들어
어제날 짓밟혀 울며 쓰러지며
가슴치던 이 땅에
인민의 기쁨은 차고 넘쳐
하늘에 날은다

영광에 넘쳐라
위대한 수령님 이끄시는 나라
나의 조국이여
수령님처럼 자애로움과 소박함을
강인함과 승엄함을 한몸에 다 지니고
새 7개년의 휘황한 미래를 향해
충진군의 북소리 높이 나아가는
영웅의 조선이여

아, 그대 걸어온 자랑찬 서른해
변한 땅
꽃핀 강산에서
행복으로 눈시울 적시며
다지는 생각은 깊고
충성의 한마음은 뜨거워라

빛내여가리라, 조국이여
천만년 수령님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다함없는 인민의 이 소원
위훈으로 창조로
그대의 가슴우에 아로새기며
꽃피워가리라
더 아름답게 더 역세게
그대를 영원히 !

빛나는 강산, 성스러운 조국이어

김 석 주

어디를 가도 그 어디를 가도
빛나는곳 성스러운 땅이어라

동해도 천리
서해도 천리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아아한 산밭을 넘어 가없는 들을 지나
가는곳 들리는 고장마다
불멸의 자욱이 별이 되어 빛나는 땅

아, 이 땅우에
영원한 행복의 길목으로 열려있는
만경대의 갈림길이어
못잊을 그날의 갈림길을 지나신 수령님
길이 없으면 길을 여시고
차가 못가면 걸어서 가고오신 수천수만리

어디를 가도 그 어디를 가도
빛나는곳 성스러운 땅이어

장평들이 뜨락에 나는 산촌마을에 가도
잉어떼 기슭을 감도는 벌마루에 가도
끝없는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
여기 수수한 농촌집 옷방에서
우리 수령님 하루밤 목어가셨다고
토지개혁의 그 봄 첫모를 내시었다고...

이 땅에 싹트고 꽃피고 열매맺는
한그루 나무 한이삭의 열매에도
가꾸어주신 사랑이 있고,
이 땅에 태어나고 시작되고 번영하는
어느 마을 어느 공장의 역사를 더듬어도
안아키우신 령도의 자욱이 새겨있어

어디를 가도 그 어디를 가도
빛나는곳 성스러운 땅이어

이 한대의 베틀에서
지방산업공장의 력사가 시작된곳이라고
이 하나의 기대에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이 시작되었다고
여기가 돌솥이 태어난 고장이라고
여기가 갈비단이 꽃핀 고장이라고

그것은 이 땅우에
무수한 별이 되어 빛나는
노래의 고장
행복의 고장
은혜로운 해빛 넘치여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

아, 위대한 수령님 모시여
빛나는곳 성스러운 땅이어

천년을 노래하라
자랑높은 이 땅의 대야금기지들이여
아름다운 강반에 솟은 청춘도시들이여
만년을 설레이라
강선의 백양나무여
북청의 과일숲이여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아아한 산밭을 넘어 가없는 들을 지나
가는곳 들리는 고장마다
감사와 고마움의 노래도 천리 또 천리
행복의 열매 주렁진 풍요한 땅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
아 빛나는 강산 성스러운 조국이어!

누리에 빛나는 평양

허 우 연

천송이 만송이
꽃들이 설레이는곳
만수대언덕에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노을을 안고
평양은 밝아온다

수려한 거리
향기 그윽한 푸른 가지들에서
맑은 이슬이 흘러내리고
장엄한 수도의 은빛 지붕들이
하늘에 솟아오른다

바라보면
눈이 시게 해빛넘친 거리
아침마다 날마다
행복속에 받아안은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에
목메여오르는 뜨거운 생각

또 하루
밝은 창문들이 열리는 소리
수도의 하늘을 흔드는
새 창조의 흐름소리 들노라면
이 아침 어디서나 만나뵈울것만 같은
아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여

언제나
하루의 첫걸음을 옮기시며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자욱자욱우에 솟아났기에
평양이여 너는
이렇듯 찬연히 빛나고있지 않느냐

어디를 보나 설레는 꽃물결
어디를 가나 넘치는 노래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나날에
층층 높이 창문을 달아주시고
우리의 행복한 락원을 펼쳐주시였기에
세월이 갈수록
가슴속에 더욱 뜨거운 그 사랑

하루에도 몇 차례
용접의 불보라속을 걸오시며
평양역사에 높이 달아주신
그 은은한 시계종소리
가슴을 울려줄 때마다
더운 이슬로 새기는 그 사랑

우리의 기쁨처럼 샘솟는
분수의 무지개 비낀 공원에도
그저는 거닐수 없는
유보도의 한그루 나무에도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은
소중히 깃들어있거니

안겨오누나 가슴뜨거이
백두의 우등불가에서
그 밤에 조국산천을 그리시며
잊지 못하시던 평양

어리신 수령님께서
찬바람 우는 길우에
자욱을 짙으시며
해방의 천리길에 오르셨던
그날의 그 거리

눈물에 삭아내린
토성랑의 움막들을 보시면서도
조선의 아픔을 안으시던곳

사령부 천막가에 내리는
가랑비소리에서도
물이 잠기던 평양을 생각하시며
해방의 봄을 펼쳐오신 수령님

아 그 사람으로
보통강기슭에서
건국의 첫삽을 뜨시여
평양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시고
전쟁의 불바다속에서도

최고사령부 작전도우에서
평양을 내려쳐오르게 하시지 않았던가

한 시대에
수천년의 미래를 앞당겨오시는
그 담력 그 사랑으로
천리마조선의 목소리
누리에 울려 퍼지게 하시어
혁명수도의 영광을 떨치게 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

어디서다 그 언제나
이 땅을 바라보면
모두의 마음속에 그리운
혁명의 요람
만경대가 솟아 찬연히 빛나고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
영광찬란한 주체의 위업을 수놓아가는
당중앙의 빛발이
만리에 비껴가나니

영광 빛나라
수령님을 따라
시련의 언덕도
창조의 노래로 넘으며
오늘에로 걸어온 거리

환호의 전승광장에서
대고조의 불길을 지펴 올리시어
조선을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시고
공산주의 봄을 펼치시어
인민을 안아 이끌어주시는
수령님의 위업을 노래하는 평양

력사의 흐름우에
조선의 존엄을 빛내이고
흐르는 시대우에
가장 찬란한 위업의 금자탑으로 솟아
빛을 뿌리는 평양이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기에
너는 찬란히 누리를 비치는
혁명의 등대 !
찾아오고 찾아오는
은빛날개의 흐름으로
무지개 비낀 너의 하늘을 보아도
마음속에 기쁨이 솟음치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기에
너는 언제나 꽃바다
두줄기 궤도우로 달려오는
흙모의 정을 담아
너의 울리는 기적소리 들어도
우리 가슴 궁지로 부풀어오르고

아 어디서나 부르며 안기는
희망의 품
한번 와 보면
두번 다시 안기고싶고
멀리 가 있어도
마음속에 언제나 그리운
주체의 고향 !

인민은 노래하노라
조선은 자랑하노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기의 앞길을
자주의 한길로 이끄시기에
흘러오고 흘러오는
흙모의 마음 감사의 꽃물결로
세월은 이어지거니

우러러 조선이 받들고
우러러 만민이 따르는
위대한 태양이
누리에 빛나는 평양
만수대 푸른 언덕과 함께
영원히 번영하리라
주체조국의 심장
사랑하는 평양이여 !

어머님 걸으시는 길위에

방금속

백살구꽃 폈네
하얗게 폈네
흰구름 피는 오산덕언덕
김정숙어머님 걸으시는 길위에
백살구꽃 구름처럼 피어났네

불밝은 밀영에서
철창안에서
그처럼 걷고싶으시던
고향언덕에
봄빛안고 서계시는 우리 어머님

추억깊은 회령천의 맑은 물가
층층 마주열린 창문마다에
그 정겨우신 눈길 보내시며
들에 은은한
프락프락 동음에도 미소하시며
걸음걸음 꽃길로만 걸으시라고
백살구꽃 천만송이 피어났네

너무나도 험악하던 세월에 쫓기어
고향프락에
가난의 짙신자국 서럽게 찍으시며
오라버니 등에 업혀 두만강 건너실젠
다시 돌아오실 날 기약없던 조국땅...

그래서 산설고 물설은 타향살이 설음속에
나어린 머슴살이 고달픈 눈물속에
방울방울 아프게 맺히던
조국이더니

수령님 만나뵈온 그 봄날부터
사령부의 불빛따라
수천 수만리길
혁명의 준엄한 굽이마다
수령님 계시는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켜오시고
그 마음 그 뜻으로
오늘도 고향땅에 서계시는 우리 어머님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은혜로운 해빛넘친
이 좋은 세월 안아오신 어머님
온 한생 비바람 맞으시며
백두의 눈길로만 걸어오신 그 자욱자욱
이 강산에 충성의 해발로 빛나는
김정숙어머님

오늘은 눈길을 걸으실세라
진땀을 뺀으실세라
어머님께 향한 우리 마음처럼
티없이 깨끗한 꽃잎을 깔아
천만년 꽃길로만 모시고싶은

천만년 받들어
꽃속에 모시고싶은
이 마음, 인민의 간절한 마음
송이마다 다 담고 피어난
백살구꽃
오산덕언덕위에 피어났네
우리 마음 꽃으로 피어났네

주체의 기치따라 30년 !

리 호 일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가장 뜻깊게 성대히 기념하는 승리자의 대축전 !

제 2 차 7 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총진군하는 비약과 전진의 길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권위와 지위가 비상히 높아지고있는 영광의 길에서 우리 인민은 뜻깊은 명절을 가장 경사롭게 맞이한다.

이 경사로운 명절을 맞이하여 온 조국땅이 활화산처럼 끓어번진다. 자랑찬 《100 일전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린 우리 인민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 60 만 재일동포들과 해외공민들이 한결같이 혁명의 수도 평양의 하늘을 우러러 다함없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로 두볼을 적신다.

영광찬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시고 이끄시며 오늘의 참다운 행복과 래일의 휘황한 광명을 안겨주신 위대한 태양 **김일성** 동지께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가장 열렬한 축하와 최대의 감사를 드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공화국— 이는 삼천리강산에 무궁토록 번영할 조국의 기치이며 우리 인민이 천만년 행복을 누리갈 품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눈보라만리를 헤쳐가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도 밀림의 바다우에 높이 휘날려주신 인민혁명정부의 기발을 우러러 근거지인민들은 얼마나 희망에 넘쳐 오늘의 조국을 그려보았던가,

이 땅에 해방의 새봄을 안고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빛나는 전통, 그 억센 뿌리에 기초하시어 온갖 난관과 시련을 박차시며 영광스러운 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인민의 숙원을 풀어주시는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는 우리 나라에서 첫 로동자, 농민의 국가,

이는 혁명의 폭풍속에서 탄생한 인민의 진정한 조국,

이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주체의 궤도를 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 길로 전진하는 혁명정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의 구현으로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주위에 굳게 뭉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이였습니다.》

공화국의 창건을 경축하는 그 시위군중속에서 주석단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삼신의 한 탄부는 랑볼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흠치며 이렇게 웨쳤다.

《삼신의 막장에서 달려왔소. 한평생 캄캄한 땅속에서 두더지처럼 살아온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 되였소. 우리 장군님을 모시고 밝은 새세상에서 대대로 행복을 누리게 되니 이 어찌 경사가 아니겠소 !》

이 어찌 한 로동자의 소박한 심정뿐이라.

참으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대경사였다.

어제날엔 나라 없어 상가집 개보다 못한 망국노의 신세였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따사로운 해발이 흘러넘치는 자주독립국가의 존엄있는 인민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새 생활을 꽃피워가는 행복한 인민으로,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된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쥔 인민, 력사무대우에 당당하게 올라서서 자기의 존엄을 뚝뚝이 지키고 있는 우리의 조국,

동방의 해돋이를 선포하며 솟아오른 빛나는 아침의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 따라 우리 조국은 창건 첫날부터 얼마나 영광에 찬 길을 걸어왔던가!

주체의 기치따라 달려온 위대한 력사!

통성과 번영의 길을 걸어온 공화국의 년대기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와 자애로운 사랑으로 수놓아진 승리와 영광의 대서사시였다.

진정 그것은 한세대에 가장 흉악한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두단계의 가장 빛나는 사회혁명을 이룩하신 광휘로운 불멸의 력사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제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깨뜨리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신것은 실로 공화국이 창건되어 방금 총창을 높이 쳐들었던 청소한 시기였다.

공화국이 세상에 태어난지 불과 이태밖에 안되는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가 달려들었을 때 1211 고지용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이렇게 맹세문을 올리였다.

…경애하는 수령이시여!

수령님의 전사들인 우리가 살아있는 한 1211 고지는 영원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지로 솟아있을것입니다.

김일성장군 만세!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조선의 신념은 이러하였으며 인민의 자유와 나라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한 혁명전사의 강철의 의지는 이러하였다.

불멸의 기치, 주체의 기치따라 폭풍과 격랑을 헤치며 시련의 언덕을 넘어온 새 조국의 빛나는 년대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세기의 령마루우에 높이 솟은 사회주의공업국가의 자랑찬 로정은 얼마나 찬연한가.

지난날 호미와 낫을 버트던 야장간자리에 오늘은 웅근 5 층 아파트와 맛먹는 6 천톤프레스가 높이 솟아났고 가랑잎같은 쪽배가 풍랑에 모대기던 눈물의 배길에 2 만톤급대형선박이 물보라를 날리며 달린다.

3 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세찬 진군길에서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상으로 달려가는 주체공업의 위용은 그 얼마나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는것인가.

천길 땅속에서 보물을 캐내는 사람들의 어깨에서 기계가 무거운 짐을 받아안고 흥겹게 돌아가고 황철과 김철의 대야금기지에 자동화의 새봄이 꽃핀다.

금산포앞바다에 또 하나의 대형벨트콘베아가 9 월의 대축전을 경축하는 무지개다리를 놓았고 새 전기철도의 은빛궤도를 따라 《조국통일》호 열차가 질풍같이 달려나간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발 따라 꽃피는 협동농장, 온 세계를 휩쓰는 한랭전선에도 끄떡하지 않고 해마다 만풍년을 노래하는 우리 농촌, 수평선이 지평선으로 변해가며 산비탈이 다락밭이 되어 금나락 설레이고 들에 가면 황금벌, 산에 가면 황금산, 이 아니 주체의 락원인가!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어디 가나 주체농법 꽃피는 청산리, 교육테제의 해빛아래 빛나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

11 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이 높이 솟고 100 만 지식인대군이 대하처럼 희망찬 새 언덕을 향하여 진군한다.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근심, 아들 딸을 공부시키는 걱정을 모르는 나라,

세금이 없는 나라,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한 주체문화예술의 대화원-

무상치료의 혜택으로 무병장수하는 나라,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찬란한 주체의 해발아래 꽃핀 사회주의락원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고 보람차게 사는 이 영광, 이 자랑을 저 하늘에 비기라 이 땅에 비기랴.

하기에 사람들은 노래한다.

수령님 한뜻으로 굳게 뭉치여

공산주의언덕으로 조선은 가네

아 내 나라 수령님 세우신

주체의 조국이며 찬란히 빛나라

아 내 나라 주체의 내 조국

수령님 모시고 길이길이 빛나라

주체의 기치따라 30 년의 년륜을 아로 새겨 온 공화국의 새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빛나는 력사이다.

이는 가장 위대한 승리이며 더없이 크나큰 자랑이다.

위대한 수령의 경도를 받는 나라만이 불패의 강국으로 될수 있으며 하나로 뭉칠 인민만이 존엄있는 민족으로 될수 있다.

오각별 빛나는 람홍색 공화국기발을 자랑차게 휘날리며 승리와 용맹을 펼쳐가는 우리 인민, 주체의 기치따라 비약의 날개를 펼쳐 권위와 존엄을 빛내가는 우리 조국의 이 자랑찬 모든것을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 전국, 전민이 사상의지적으로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었기때문이다.

백두의 산악같이 드눌줄 모르는 그 통일단결!

천지의 맑은 물과 같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이든지 못해낼 일이 없었다.

나라의 안팎에서 원썬들이 달려들던 준엄한 계급투쟁의 낮과 밤, 반당반혁명종파들을 력사의 오물통에 쓸어버리던 때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그이의 로고를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잠들수 없어 베개잇을 뜨거운 눈물로,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충성의 눈물로 적신것은 어찌 태성할머니뿐이었으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청춘을 바친 전투영웅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최상의 영광, 최대의 기쁨으로 여기고 림종의 순간까지 정든 협동마을의 밭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농민영웅.

우리 로동자들이 천만금보다 더 귀중하다고 하시며 왜놈의 채찍밧에 고역에 시달려온 피눈

물의 원철직장을 폭파하라고 하시였을 때 만세를 부르며 흐느껴 울던 강철공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기 위하여 물에 적신 가마니를 쓰고 로속에 뛰여든 혁명의 전위들.

실로 주체의 기치따라 질풍같이 달려온 30 년은 은혜로운 태양의 해발로 수놓아진 위대한 사랑의 력사이며 불보다 뜨거운 충성으로 아로새겨진 영원한 충성의 영웅서사시이다.

외국의 어느 한 수반은 조선혁명의 승리의 비결, 그 모든 성과와 비결을 알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힘주어 말하였다.

《이 비결은 당신들이 인민들을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천리마정신으로 무장시키신 우리의 형제이시며 벗이신 존경하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데 있습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조국이 있으며 오늘의 영광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기에 혁명의 참다운 력사가 있고 민족의 대변영이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가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령마루를 향하여 달려가는 조선!

항일의 혈전만리 맨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일제의 백만대군을 쓸어눕히던 백두의 그 혁명정신으로,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미제침략자 야수놈들을 송두리채 뒤흔들어놓고 멸망의 나락에 차던지던 그 영웅적기상으로 전후의 재더미를 헤치고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을 안아올리던 그 기백으로, 세상사람들을 놀래이며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질풍같이 달려가는 우리의 영웅적 인민,

우리 인민은 한결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높이 우러러모신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잊을수 없는 그 나날

백인준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우리러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찬란한 해빛아래 그이께서 창건하신 공화국의 기치를 휘날려온지도 어느덧 30년이 된다.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이하면서 나는 공화국창건을 전후한 시기의 여러가지 잊을수 없는 회상 가운데서 문학예술 첫 월간잡지인 《문화전선》 창간호를 발행하던 때를 새로운 감격속에 돌이켜보게 된다.

조국에 개선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건국초창기의 그 바쁘시고 곤난이 중첩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면서 해방된 조국의 문학예술건설 사업을 몸소 령도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속에서 붓을 꺾고 산지사방 흩어져 방황하던 작가들을 한 사람한 사람 찾아내시는 한편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문학에 뜻을 두었으나 자기의 재능을 꽃피울 수 없어 애타하던 광범한 군중문학통신원들을 집결하시여 1966년 3월에 북조선예술총련맹을 조직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북조선예술총련맹을 무어주신데 뒤이어 출판물발행에 필요한 청사며 설비, 자재 등을 비롯한 가지가지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을 문화전선에서 싸우고있는 투사들입니다. 동무들에게는 동무들의 입으로, 동무들의 붓으로 조선사회를 뒤걸음질치게 하려는 반동세력을 쳐야 할 책임이 있으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민대중을 애국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으로 교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복잡한 국내외정세속에서 당을 창건하시오 인민정권을 수립하시며 력사적인 민주개혁들을 실시하고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자주 가까이 부르시여 우리 문학이 나아갈 방향과 작가들의 력사적사명에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 시군하시였다. .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는 실로 끝이 없었다.

잊을수 없는 1946년 8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작가, 예술인들에게 고급양복지들을 보내주시면서

이름없는 한낱 문학청년에 불과하였던 저에게도 그 옷감을 보내주시였다.

이때 나는 새 조국건설에 참가하면서 해방후 처음으로 몇편의 시들을 발표하기 시작한 20대의 청년으로서 작가들가운데서 제일 나이가 어리였다.

작가라기보다는 아직 하나의 문학청년이였으며 해방될 때까지 단 한편의 시도 발표해보지 못한 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같은 무명작가에게도 고급양복천을 보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창작에 불편할세라 당시 곤난한 조건속에서도 작가들에게는 서재가 달린 좋은 주택들을 골라주시였으며 자신께서는 겸소한 식사를 하시면서도 작가들에게는 옥백미를 가마니로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어 댁에 로작가들과 같이 저도 부르시여 저녁식사를 같이 하시며 밤이 지새도록 해방된 조국의 문학예술이 나아갈 길을 환히 가르쳐주시였다.

해방전 그렇게도 전설적영웅으로 흠모하여오던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이와 같이 자애로운 사랑과 고무격려를 받게 되니 가슴에 차넘치는 감격과 흥분은 저절로 노래로 되고 시로 되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지어는 자다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도 글을 쓰면서 《문화전선》의 발행을 준비하였다.

이때는 누가 무슨 작품을 쓰라는 원고의뢰를 받아 하기보다 스스로가 작품을 쓰지 않고는 견딜수 없어서 오늘은 토지개혁 다음은 농업현물세제실시 또 그다음은 로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 중요산업 국유화법령 하고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되는 그 자리에서 글을 쓰곤하였다.

해방전 나는 제판에는 소설을 쓰자고 생각하고 공부해왔으나 해방후 매일같이 련달아 일어나는 시대적감격을 참을수 없어 그때그때 노래하자고보니 어느덧 시를 쓰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화전선》 창간호에 《그날의 할아버지》라는 시 한편을 실게 되었는데 그것은 력사적인 토지개혁을 노래한것이였다.

그때까지 재능도 없었지만 발표할래야 발표할 지면이 없어서 습작만 하고있던 내가 처음으로 그것도 창간호에 시를 발표하게 되었다.

드디어 1946년 9월 월간잡지 《문화전선》 창간호가 세상에 나왔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의 나의 감격과 기쁨은 아직도 잊을수 없다.

첫 문학잡지가 세상에 나왔을 때 작가들은 모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문화전선》 창간호를 받아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그만하면 내용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문화전선사를 잘 꾸려주어 빨리 단행본들도 뽑아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앞으로 잡지만 내지 말고 소설, 시집 등 단행본들을 많이 출판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애로되는것을 일일이 알아 보신 다음 그날 밤 자금으로 쓰라고 10만원의 돈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또다시 돌려주시였다.

나라의 모든것을 새로 일떠세우고 새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길로 나가는 혁명앞에 제기되는 난관과 애로도 수없이 많고 자재와 자금, 로력과 시간도

긴장한 어려운 시기 문화건설을 위하여 돌려주시는 거액의 돈을 받아안은 문화인들의 가슴은 진정할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국가에서 더 많은 방조를 주도록 하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해주시였다.

이렇듯 우리 문학예술은 어버이수령님의 한없는 사랑과 뜨거운 배려속에서 오늘의 주체의 문학예술로 발전하여왔다.

오늘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이하면서 열정과 량만에 넘쳐 글을 쓰고 또 쓰던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그후 오늘날까지 받아온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끝없는 배려와 은덕을 생각해볼 때, 또 그때에 비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비유로도 대비되지 않을만큼 좋아진 창작조건들을 생각해볼 때 그에 보답함이 너무도 없음을 자책하지 않을수 없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영예와 자랑을 안고 비록 육체적으로는 늙어가나 창작적열정에서는 해방 첫시기의 그 열정을 잃지 않고 더욱 창작에 매진하려고 다시한번 굳게 마음다지게 된다.

다듬은 말

배 이름

본래말

다듬은 말

조생적

청단

만삼길

해주

토좌금

신의주

장십랑

길주

팔운

철산

진유

누른배

국수

물참배

본래말

다듬은 말

사백목

벽성

도이칠란드

붉은배

찌리

박배

빠트렛트

병배

부레이고스

울병배

로렌스

꿀배

기파

붉은병배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박 세 영

우리 인민은 오늘 긍지높이 공화국창건 30돐을 민족적명절로,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온 세계에 선포하신 9월 9일!-이는 온갖 수난과 갖은 멸시를 다 겪은 우리 인민이 력사무대의 당당한 주인으로 등장한 날이며 우리 조국이 룡성번영할 래일로 첫걸음을 떼던 영광스러운 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으로 조선인민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는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정 잊을수 없는 1948년 9월 9일은 아시아 동방일각에 첫 인민민주주의국가가 탄생하여 오각별 빛나는 람홍색 공화국기발을 하늘높이 휘날리며 인민의 새사회가 펼쳐졌음을 온 세상에 보여준 날이다.

영광스러운 이날을 마련해주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20여성상에 걸쳐 엄혹한 항일혈전을 벌리시여 끝내 일제를 타승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자주독립국가의 주인이라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해방직후 나는 미제가 강점한 암흑의 남녘땅에 있으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의 하늘을 얼마나 동경하였던가.

나는 오매에도 그림고 흠모해 마지않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내용과 사진들을 신문에서 보았을 때 참으로 감개무량하였다.

그후 나는 낯강도 미제가 살판치는 암흑의 땅을 벗어나 단연 평양으로 들어왔다, 사람들도 열정에 넘치고 다정하니 산천도 다정하고, 거리도 마을도 아직은 그전 그대로 이견만 모든것이 왜 그리 새롭게 안겨왔던것인가.

필력이는 프랑카드 하나를 보아도 새세상에 안기여 설레이는 나의 마음 같았다.

그것은 그림던 새 제도의 뜨거운 숨결이 나의 온몸을 감싸주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때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접견을 받게 된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 나서 실로 처음으로 향유하는 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작가대렬에 세워주셨으니 나는 진정 몸들바를 몰라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까지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니 세월이 흘러간다고 내 어제 그날의 감격을 잊을것이라.

오매에도 그림던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에 안기게 되니 통분하고 처참했던 지난날이 삼삼히 눈앞에 떠올랐다. 그것은 나의 조국 3천리금수강산에서 해가 떨어진듯 참으로 비통했던 그날을 직접 보았기때문이다.

그때는 1910년 9월 어느날이었다.

하루는 내가 서울 종로 대광교옆에 있는 목기상점에 심부름을 갔을 때 청천벽력같은 사실에 부닥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처음보는 《일장기》를 행렬 선두에서 날리며 《계다》 짝을 끌며 가는 왜놈들의 날뛰는 모양을 보았기때문이었다.

알고보니 그것은 악독한 일제침략자들이 우리 나라를 먹었다는 소위 《축하행렬》이라는것이였다. 나는 몹시 역겨워 밖에 나가보지도 않았다. 그때 나는 우리 나라가 없어졌다는것을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부터는 내가 노래를 부르며 삼선평으로 운동회에 가던것도 못하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정말 앞이 캄캄하였다. 그러나 그때 나는 3천리금수강산이 통곡하는것도 미처 다는 몰랐다. 품은 희망이 저 푸른 하늘에 나래쳐야 할 조선소년이 멍에를 메야 하다니 나의 앞길도 천길 구렁렁이속같이 생각되었다.

모진 고초만 겪던 그 세월은 몇세기처럼 길었던만 나는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굳센 신념과 나래치는 희망을 안고 살았다.

그러기에 나는 암흑의 그 시대에도 꺼질줄 모르는 그 희망을 량식으로 삼아온데 대하여 서시의 한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쓴 일이 있다.

그 누가 나로 하여
불굴의 투지 용솟게 하고
굳은 절개 눈동자처럼 지키게 했던가

그분은
우리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그분이 밝혀주신 해방의 해불
한가슴에 안아서였어라

...

내가 오늘 땃땃하게 당의 가수로 자라나게 된것도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여 현명하신 가르치심을 받았기때문이다.

내가 평양으로 들어온 그해 가을에 다른 두 작가와 함께 나는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미소를 담으시고 우리를 뜨겁게 맞아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앞으로 창건하게 될 공화국의 애국가를 창작할데 대하여 이렇듯 미리부터 우리들을 부르시어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신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노래에 담아야 할 중심 내용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애에 넘치신 어버이사랑으로 우리 작가들을 뜨겁게 고무격려하여주시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있는 기적과 전변은 그 어느 하나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조차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전후 재더미우에서도 천리마를 탄 기세로 우리 인민은 전진하여 왔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된 인민생활을 그토록 윤락하게 추켜세울수 있었다.

공화국이 창건된지 30 뽕이 되는 오늘의 우리 나라는 국제적으로도 그 위신이 높은것은 물론 주체의 조국,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공업강국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해빛 찬란한 인민의 락원에서 우리 인민들은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다.

혁명의 수도 평양으로부터 백두산아래 머나먼 산골에도 문명의 창문들이 반짝이는 우리 나라! 100

만의 지식인을 키워낸 교육의 나라, 무상치료제가 빛나는 나라, 세상에 세금없는 첫 나라로 된 나의 조국이다.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 찬란한 혁명위업의 고귀한 열매여서 온것이다.

온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존경하며 높이 우러러 흠모하는 주체의 태양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신 행복에 넘친 우리 인민이기에 지칠줄 모르는 패기와 열정을 저 푸른 하늘에 수놓으며 60 청춘 9060 뽕 생일을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가기에 나는 오늘도 청춘시절에 살고 있다.

어린시절에 조국을 빼앗긴 슬픔을 안고 헤매이던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며 비로소 자기 조국의 참다운 모습을 피뽕는 가슴에 안을수 있었다.

그날에 흘리던 감격의 뜨거운 눈물!

그것이 그대로 나의 조국에 바치는 마를줄 모르는 노래가 되어 심장속에서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이 세상 끝까지 모시고 따르려는 나의 가슴속에서 충성의 이 노래는 영원히 솟구쳐 나래칠것이다.

가슴속에 샘솟는 간절한 소원

구 희 철

이 땅우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다면
해빛보다 따사로운
수령님 사랑이 있기때문이어라

이 땅우에
삶이 있고
행복이 있다면
자애로운 어버이
수령님 품속에 안겨살기때문이어라

수령님은 사랑의 태양!
그 태양의 따사로운 해빛아래
행복한 삶을 꽃피우는
나는 한송이 꽃
인민은 천만송이 꽃!

수령님 펼치신 미래는 바다
그 바다 따라 달음치며
한뽕으로만 흐르는 강처럼
거침없이 씩없이 나가는
나는 한줄기 시내물

인민은 수억만의 시내물!

태양의 따사로운 해빛없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 꽃피고,
넓은 하늘의 품이 없이
어떻게 별들이 빛나고
줄기차게 흘러가 닿을 바다없이
어떻게 내물이 흘러가라

사랑 안은 가슴에
사랑을 더하여주시고
은덕 넘친 땅우에
은덕을 더하여주시는
어버이수령님 한없는 그 사랑
세월 따라 날 따라 더해질수록
가슴속 샘솟는 소원이 있어라

아, 꽃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별처럼 빛나는 충성으로
영원히 하나인 길을 따라
천년이 가고 만년이 흘러가도
사랑의 태양 수령님만을 모시리

전쟁전에 출판된 천연색 사진첩에서 볼수 있는 상룡나루터의 풍경은 평범한것이였다.

...가을날의 한낮,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맑다.

비류강 삼룡나루터의 깊은 물속엔 살진 잉어들이 뛰놀고 그우엔 미끄러지듯 줄배가 떠가고있다.

이쪽은 절벽이요 저쪽은 마을이다. 절벽우엔 백년 묵은 로송들이 강물속으로 진한 그늘을 던지고 마을쪽 강가에는 키높은 황철나무들이 줄지어 서있다. 그 어느 한 나무꼭대기로 장난군 애녀석이 새둥지를 털기 위해 올라가고 마을뒤 저 멀리로는 방금 가을걷이를 끝낸 밭이랑들이 산허리를 감으며 아득히 사라졌다.

마을집들의 지붕우에는 김장고추가 빨갭게 널려서 산골가을의 정취를 한결 돋구어주는데 나루배에서 내린 주인들을 반겨 개들이 달려나온다.

비류강을 끼고 양덕쪽에서 뻗어오던 외통신작로가 이 나루터에 이르러 두갈래가 된다.

한갈래는 강건너 마을앞으로 가는 광산쪽이요, 또 한갈래는 그대로 곧장 뻗어 성천쪽이다.

목청 좋은 총각이 매생이에 영화필림통을 싣고 하룡쪽으로 떠내려가면서 계절에 취하여 한 소리 멋지게 뿜아낸다.

노저어라 에헤야 기운이 솟네
오곡이 무르익는 내 고향 가을일세
앞강엔 고기떼요 뒤산엔 황금열매
별방이 부러우랴 바다가 부러우랴

그 총각을 바래워 나루터의 이쪽과 저쪽에서 손서를 기다리고있는 손님들이 손을 흔들어준다...

사단장 오현만은 자기의 젊은 부관이 이 사진을 배당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잠만 있으면 꺼내보는데 놀랐다.

마치 부관에게 있어 생활은 첫째가 미제침략군과의 싸움이고 둘째가 이 사진에 열중하는것처럼 생각될 정도였다.

잠자야 할 깊은 밤에도 부관은 탄알검테기로 만든 등잔불아래에서 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하였다.

《교향이요?》

《그렇습니다.》

《좋은 마을이로군.》

《지금쯤은 살구꽃이 한창입니다.》

《동무도 이 나루배를 타고 다녔겠군.》

《그렇습니다. 이 애처럼 새둥지를 털려고 나무꼭대기로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사단장앞에서였지만 교향이야기가 나오면 부관은 흥분하였다. 그 흥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것이어서 사단장이 먼저 말머리를 돌리곤하였다.

《벌써 2시요. 잠을 좀 자야지, 5시엔 새 작전이 시작되오.》

그러나 부관은 여전히 사진을 펴놓고 등잔불아래에 앉아있었다.

시를 쓰는듯 두터운 공책에 무엇인가를 써넣다가는 다시금 그 사진을 들여다보곤하였다.

사단장은 젊은 부관의 이런 열정을 이해하였다.

꿈많은 대학생이었던 부관이 교향을 생각하고 시를 쓰는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단장자신 중학생으로부터 곧바로 민족의 태양 김일성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항일유격대 대원이 되었고 눈보라우는 밀림속에서 밤이면 불무지를 끼고 자면서 교향을 생각했었다.

그런 밤엔 그역시 공책에 시를 썼었다. 이런 사단장이어서 부관이 시를 쓰는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그런 시절을 보는듯하여 미소를 짓곤하였다.

화목한 사단장과 부관이였다. 끝없는 전투와 행군, 차지한 계선에서의 치열한 공방전은 계속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때로 조용한 밤이 찾아오기도 하였다.

이런 밤이면 사단장은 간혹 옛 작식대원의 숨씨를 보여주곤하였다.

밀가루나 순대, 산나물로 만든 특식이였다. 사단장은 이 식탁에 부관과 연락병을 《초대》하곤하였다.

이런 날엔 연락병이 누구보다도 기뻐하였다. 아직도 숨털이 그대로 있는 연락병은 집에서 어머니가 만든 명절음식처럼 단숨에 먹어치우곤하였다.

그것을 보는 사단장의 얼굴에는 웃음이 실리였다. 《어느것이 제일 맛있나?》

그러면 연락병은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산나물찜니다.》

연락병과는 달리 부관은 정중하게 말하였다.

《사단장동지의 산나물요리는 일류급요리의 숨씨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이처럼 뛰어난 요리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러면 사단장도 부관의 칭찬에 더없이 만족해하

였다.

《장군님께서 배워주신거요. 그전에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장군님께서서는 자주 우리들의 시기에 손수 만드신 산나물채를 놓아주시곤하셨지. 그런 날은 우리들의 명절이었소. 마치도 조국땅에서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것만 같은...》

사단장은 문득 말을 끊었다. 젊은 부관은 웬일인지 사단장의 두눈시울이 젖어있는것만 같은 촉감을 느꼈다.

《조국... 이 조국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자네들은 아마 모를거네.》

깊은 감회에 잠겨 조용히 이야기하는 사단장의 목소리는 저오기 떨리었다.

《입대전에 학교에서는 조국이 무엇이라고 배웠나?》

사단장은 나 어린 련락병을 사랑어린 시선으로 보며 물었다.

련락병은 뜻밖의 질문에 긴장하여 대답하다가 중도에서 막혀버렸다.

《자기 나라, 자기 땅...》

얼굴이 붉어진 그는 부관쪽을 향하여 구원을 청했다.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사단장동지.》

부관은 련락병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섰다.

《조국은 나의 집, 나의 부모, 나의 마을,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희망과 래일까지도 포함한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옳네, 조국은 바로 그런거지, 내 마음속의 친근한 모든것이야. 인젠 알겠나, 준호.》

사단장은 숙제검열을 제대로 받지 못한 중학생처럼 주눅이 들어 앉아있는 련락병을 정다운 시선으로 건너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지금 침략자 미제로부터 이것을 지키고 있지. 우리의 이 조국은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찾아주신거네. 항일선렬들의 의로운 피가 흐르지 않은곳이란 한치도 없어.

그런데 련락병동무, 동무는 참된 전투에 참가해 본적이 있나?》

사단장의 물음에 련락병은 대답이 막히었다. 입대한지 얼마 안되는 그는 본격적인 전투에 참가해 본적이 없었기때문이었다.

《전사가 보충을 취고 자기 피로써 빼앗은 땅우에 었디여 돌격명령을 기다리고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병사는 자기가 배를 깔고 었드린 그 한줌의 조국땅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할수 있는거요.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이 조국땅이말이요, 조국이라는것은 참 숭고한 개념이요. 만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땅에 해방의 해발을 안아오시지 않

으셨다면 우리에게엔 조국이라는 개념도 영원히 없었을것이요.》

사단장의 엄숙한 어조에 부관도 련락병도 침묵을 지켰다.

생각이 깊어지게 하는 별 많은 밤이었다.

세사람의 밝고 따스한 가슴속에는 침략자들로 부터 조국을 지켜내고 래일은 더더욱 부강해질 조국을 위한 한길에 서있다는 믿음이 끝없이 오고갔다.

그런 어느 한 날에 부관은 전선길우에서 희생되었다.

1 체대 련대들로 가던 그들은 적군 우회대에 의해 통로를 차단당하였다.

부관은 지휘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분대들을 호출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 그 길을 연것이었다.

사단장은 그날 밤 늦게까지 엄폐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포성이 끝없이 울리며 흙부스레기들을 털어내는 밤이었다.

사단장은 자주 칸막이로 친 두터운 모포를 헤치고 부관이 앉아있던 탁상에 시선을 세우곤하였다.

지금은 거기에 련락병만이 혼자서 조용히 앉아있었다.

밤마다 이맘때면 등잔불아래에서 부관이 상롱나루풍경을 보며 공책에 시를 써넣곤하였다.

사단장은 마음 한구석이 비는듯한 울적한 기분으로 부관의 배낭에서 그 사진과 공책을 꺼내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보풀이 일고 꺾음자리들에 금이 간 상롱나루터의 풍경을 들여다보던 사단장은 고향에 대하여 쓴 부관의 시를 읽으려고 공책의 뚜껑을 열었다.

순간 사단장은 보려니 했던 시줄들이 아니라 뜻밖의 기록들과 그림을 보게 되었다.

공책의 첫장에는 상롱교라는 명판이 붙은 맵시있는 다리가 그려져있었다.

현대식으로 건설된 가볍고 경쾌한 다리여서 보는 사람의 눈이 막 시원해질 지경이었다.

교각과 경간, 란간의 하나하나가 아주 정확하게 그려진 다리였다.

다음장을 번지면 상롱나루터에 이 다리를 건설하는 경우 기초재료로 리용할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있었다.

지질조건이며 홍수실태에 관한것들이었다. 그 다음장을 번지면 상롱다리건설의 절박한 필요성이 조항별로 언급되어있었다.

이에 의하면 해마다 이 지대에서는 제 1차 장마로부터 나루배리용이 불가능하여 강북과 강남의 교통은 없어진다.

현재 강남에 위치한 광산들이 이때문에 지장을 받고있다.

특히 이 지대가 매장량이 많은 각종 광석을 가진 자원지구라는것을 고려한다면 전쟁후 건설에서 상용교건설은 중요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또한 강남지대와 강북지대의 농민들도 앞으로는 기계농사를 지어야 하는 조건에서 나루배에 의탁하여 농경지를 다룬다는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외 국방, 교육, 보건, 문화의 건지에서 상용교 건설의 필요성이 지적되어있었다.

사단장은 부관이 남기고 간 공책의 매장에 취해있다가 담배를 한대 피워물었다.

인제는 용감한 최후를 마친 부관이 밤마다 등잔불아래에서 무엇때문에 그처럼 고향풍경에 열중해있었던가가 명백해졌다.

칸막이모포가 제껴지더니 연락병이 들어와서 작전판주위에 커놓은 등잔들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돈구어놓았다.

《동무도 이걸 본 일이 있소?》

사단장은 연락병을 탁상가까이로 불렀다.

《그건 부관동무의 고향풍경입니다. 부관동무는 밤마다 상롱나루에 놓을 다리의 모형을 찾느라고 애썼습니다. 이런 모형, 저런 모형을 그려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다가는 던져버리곤하였습니다.》

결국은 공책에 옮긴 형태로 락착짓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대학으로 돌아가서 1년간의 수업을 마저 마치고 이 설계를 완성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관동무는 상롱마을 출신의 첫 대학생이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자기네 첫 대학생을 학교로 떠나보낼 때 이 나루배를 꽃으로 장식했다고 합니다.》

《…………》

한모금 길게 담배연기를 빨아들이는 사단장의 눈엔 물기가 스쳐갔다.

《마을 늙은이들은 부관동무를 대학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자는 다리를 놓는 기술을 배우고 오게. 우리 손으로 상롱나루에도 번듯한 다리를 놓아보자구. 아직도 우리 마을에 장군님을 모시지 못한건 다리가 없기때문이야.> 부관동무가 교량학부를 택한건 이때문이었습니다.》

사단장은 피워문 담배의 끄트머리가 타버릴 때까지 생각에서 깨어나지 못하다가 늦게야 입을 열었다.

《제일 질긴 종이로 커다란 봉투를 하나 만드오. 부관동무의 이 설계를 조국에 바칩시다. 우리 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조국에 기여하려 했던 계획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소.》

다음날 연락병은 사단참모부에 있는 종이들중 가

장 질긴 종이로 커다란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왔다.

사단장은 부관의 설계문서와 함께 자신이 쓴 편지도 그 봉투속에 넣어보냈다. 그 편지에서 사단장은 이 애국전사의 념원을 조국은 잊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썼다.

세월은 흘렀다. 전쟁도 끝났고 사단장 오현만도 다른 직무로 소환되었다. 당은 그로 하여금 조국을 멀리 떠나 외국에 가서 사업하도록 하였다.

그러는 사이 해와 달도 여러번 바뀌었고 그가 일하는 나라도 여러번 바뀌었다.

그가 동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 가서 일할 때였다. 그 나라의 수도에서는 조선의 사진전람회가 열려서 상황을 이루고있었다.

오현만은 조국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 때 사진앞에서 오래동안 걸음을 멈추곤하였다. 그러다가 한 사진판앞에 이르러 영영 굳어진듯 움직이는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가을의 한낮이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맑다. 비류강 상롱나루터의 깊은 물속엔 살진 잉어들이 기운차게 뛰놀고있다.

이쪽은 절벽이고 저쪽은 마을이다. 절벽우엔 백년 묵은 로송들이 강물속으로 진한 그늘을 던지고 마을쪽 강가엔 황철나무들이 줄을 지어 서있다. …

오현만에겐 그렇게도 눈에 깊이 뱀 상롱나루터의 풍경이다. 그 상롱나루 풍경우에 젊은 부관의 얼굴도 떠올랐다.

토막토막 끊어졌다 이어지던 전선의 행군길, 짧은 휴식, 긴장한 전투의 밤들이…

그리고 떠올랐다. 포성에 흔들리던 엄폐부의 흙부스레기들, 기름불로 밝혀진 습기찬 탁상, 보풀인 한장의 사진, 한편의 공책…

그날에 익혔던 상롱나루엔 지금 물우에 미끄러지듯 떠가는 나루배가 없다. 그대신 날개 돋친듯한 180 메터의 경쾌한 다리가 이쪽 강안에서 저쪽 강안으로 건너갔다.

땀시있는 교각들… 그 엄폐부, 그 기름불, 그 탁상우에서 친숙해진 교각들이며 란간들이었다.

폭넓은 상용교우로는 프락포르들이 외줄기연기를 쏘아올리며 가고있다. 광석들을 만재한 중량급 화물자동차들도 가고있다. 상롱마을의 초가집들도 기와집으로 바뀌어졌다.

세월은 상롱나루의 먼 풍경, 가까운 풍경을 달라지게 했다. 래일은 더더욱 달라질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젊은 부관은 살아서 고향나루가의 황철나무밑에 서있는듯만싶었다.

오현만은 뜨거워지는 눈굽으로 손을 가져갔다.

영원히 살아있을 전사여, 조국이어.

승고한 추억

정 성 훈

설계가 김원기는 침착한 사람이었다.

내가 그를 만난것은 공훈설계가칭호를 받은 날 저녁이었다.

그의 책상우에는 다섯자루의 연필이 그루를 나란히 하고 놓여있었다. 잘드는 손칼로 사색에 잠겨 천천히 깎은 연필들이었다.

《아닙니다. 작가선생, 제가 받은 표창은 정직하게 말씀드려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란 누구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저의 소년단원 시절의 스승입니다.》

《설계분야의 권위자인가요? 지금 어디서 일합니까?》

《황철명선생이라고... 아쉽게도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철부지소년이었지요...》

김원기는 추억에 잠기었다.

추억이란 제가꿈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있다. 밝은색, 무거운색, 혹은 찬색...

그래서 사람들은 추억을 두고 아름다운 추억, 쓸쓸한 추억, 혹은 피로운 추억이라 이름하는것이라.

《1950년 가을의 어느날이었습니다. 저의 학교는 미군놈 비행기폭격에 허물어지고 우리는 반토굴 림시교실에서들 공부했습니다...》

...반토굴교실속에서는 스물두명의 소년들이 그날 첫 수업시간을 기다리고있었다.

새 학년에 올라와서 두번째로 공부하게 되는 헌법시간이었다.

분단위원장은 아이들을 지휘하여 간간히 책상줄을 맞추었고 학급반장은 기관총화점의 화구처럼 생긴 반토굴창구에 몸 절반이상을 기여내밀고 흑판지우개를 열심히 털었다.

헌법은 사이다병 밀창처럼 두터운 안경을 낀 엄하고 간간한 교장 황철명선생이 배워주었던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교장선생을 맞을 준비에 서둘렀는데 김원기만은 제일 뒤자리에 앉아 부지런히 글을 쓰고있었다. 그만 헌법학습장을 잇고 왔던것이다. 원기는 세계지리학습장을 뒤집어놓고 뒤장에다 《헌법학습장》이라고 큼직이 쓰고는 옆에 앉은 봉남이 학습장을 부지런히 옮겨쓰기 시작하였다. 첫수업을 끝내면서 교장선생은 다음시간에는 학습장

을 검열해보겠노라고 말했던것이다.

아직 상학종이 울리자면 퍼그나 시간이 남았으리라고 생각되었는데 문이 열리며 선생이 들어섰다.

뜻밖에도 들어온 선생은 교장이 아니라 전주대처럼 키가 큰 교무부장선생이었다.

영문을 알수 없어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교무부장 선생은 이상하게도 눈에 띄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조용히 앉아서 전번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십시오. 교장선생님은 다른 중요한 급한 일로 해서 오늘 나오지지 못합니다.》

교무부장 선생이 나가자 교실안은 흥성거렸다.

원기는 글쓰던 연필을 던졌다. 공연히 책상줄을 맞춘다. 흑판지우개를 간간히 툰다하면서 부산을 피웠었다. 교장선생한테 매일같이 《다른 중요한 급한 일》이 생긴대도 섭섭하지 않을것이다. 간간하고 엄하고 학교에서 《제일 높은(교장선생이 배워주는 헌법과목은 흥미가 없었다.

력사과목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섞인것도 아니고 물리처럼 제손으로 전동기를 만들어 보는 과목도 아니었다.

원기앞에 앉은 아이가 크게 소리치더니 요술사처럼 주머니속에서 빨강고 파란 물건들을 꺼내어 높이 들어보였다. 전체 학생들의 눈길이 그와 손에 쏠렸다. 어제저녁 인민군교사포에 얻어맞고 떨어진 미군놈비행기에서 뜯어온 약전기구부속이었다.

《히야-! 날랜데!》

원기는 봉남이를 추동질하였다. 다른 아이들이 손을 대기전에 복습으로 선포된 헌법시간에 부속품들을 뜯어오자는것이였다.

봉남이는 제일 앞자리에 앉은 김형무쪽을 보았다.

《너 형무가 고자질할가봐 겁나니?》

《내가 <국수집아들>을 겁나해?!》

김형무는 며칠전 자기 국수집에 들린 체육선생에게 축구공 내피를 구멍낸 학생이 바로 봉남이었다는것을 일러바친것으로 해서 단단히 보복당했었다. 봉남이가 김형무네 집 벽돌굴뚝에 기여올라가서 깊몽테기로 굴뚝을 막아버려 웅근 이틀을 김형무네 국수집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던것이다.

봉남이는 원기의 제의에 동의하였다.

《가만, 조금만 기다려. 나도 한가지 자랑할것이 있어!》

봉남이의 가방속에서 산비둘기알 두개가 나왔다.
아이들은 다시한번 《히야-!》하고 소리쳤다.

이 시각 교직원실로는 황철명교장이 들어섰다.
청석골분교에 들려오면서 수업시간때문에 급히 뛰어온 모양 그는 숨가빠하였다. 황철명교장이 들어서자 전체 교원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방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드리였다. 교장은 문가에 섰채 천천히 교원들을 둘러보았다. 교장의 눈길앞에서 녀선생들은 마치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들처럼 머리를 숙이였고 남선생들 역시 교장과 눈길이 마주치기를 두려워하며 거북한 손가짐을 하였다.

전선에서 싸우고있던 교장의 둘째아들 황영식이 전사하였다는 사망통지서가 교장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사망통지서와 영식의 영웅적최후에 대한 지휘관의 편지를 전체 읽고난 교장의 랑볼로 경련이 스쳐 지나갔다.

교무부장이 한걸음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교장선생님 !... 괴롭이... 크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장선생의 괴로움을... 어떻게 덜어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교무부장의 말이 끝나는데 한 녀선생이 《흐흠...》하고 흐느끼더니 책상에 얼굴을 묻었다. 신숙선생이었다.

교장의 두터운 안경알속에서 물기를 머금은 눈동자가 교원들을 침착히 둘러보았다.

황철명교장은 책상우에 머리를 묻고 흐느끼는 신숙선생앞으로 다가갔다.

《신숙선생.》

교장의 부름에 신숙선생은 천천히 머리를 들더니 일어섰다. 신숙교원은 전사한 황영식의 옛 담임이었다.

《신숙선생 ! 영식이를 이 나라의 아들답게 키워주어 고맙습니다.》

학부형으로서 하는 인사였다.

교장은 회중시계를 꺼내보더니 《수업시간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 책상에 가서 교수안과 백목통을 들었다.

《교장선생님.》 교무부장의 말이였다.

《좀 쉬셔야겠습니다.》

《아닙니다. 스물두명의 아들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장선생의 출현에 온 학급이 놀랐다. 교장선생은 교탁우에 교수안을 놓더니 여느때없이 학생들 한사람한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앉으시오.》

교장선생의 목소리는 낮았다.

《전번 시간에 배운 장을 펼치시오.》

스물두명 학생들이 책장 번지는 소리가 반토굴 교실안에 울렸다.

교장선생은 말없이 펼쳐진 학생들의 학습장들을 돌아보았다.

맨 뒤줄에 앉은 원기앞에 이른 교장선생은 갈겨 쓰다만 그의 학습장을 더욱더욱 굽어보았다.

교장은 원기앞에 말없이 섰다가 말없이 물러났다. 자기자리에 돌아간 교장은 가슴을 짝 펴고 엄숙히 학생들을 마주보더니 같았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김원기학생, 흑판에 나와서 제 1 장 제 1 조를 써보시오.》

김원기는 흑판과 마주하고 백목을 들었다. 그는 자기가 1 장 1 조쯤도 모르는 학생은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빠른 솜씨로 휘갈겨 썼다.

스물한명의 학생과 교장선생의 눈길이 자기의 손을 지켜보고 있다는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썼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비행기부속이 걱정되였다. 날랜 아이들이 모조리 뜯어갈수 있었던것이다.

마지막 글자까지 쓰고난 원기가 손에 묻은 백목가루를 바지에 문지르며 돌아섰을 때 교장선생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김원기학생, 다시 쓰시오.》

학생들도 원기도 영문을 알수 없었다. 원기가 쓴 1 장 1 조는 한자도 틀런데가 없었던것이다.

김원기는 지우고 다시 썼다. 처음에는 내용에 앞서 《제 1 장 제 1 조》를 쓰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굵직하게 썼다.

자신있게 돌아서는 원기의 머리우에서 다시 교장선생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김원기학생, 다시 쓰시오 !》

김원기도 온 학급학생들도 놀란 눈으로 교장선생을 쳐다보았다.

교장선생은 몸을 곧게 펴고 랑손은 마치 대렬속에 서있는 전사들처럼 바지흔술에 착 붙이고서 말하고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안경속에서 엄숙한 빛을 띠고있었다.

《학생들 !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시고 창건하여주신 우리 나라의 이름을 쓸 때에는 바른 몸가짐을 하고서 그 한자 한획을 또박또박 정중히 정자로 써야 합니다.》

엄숙한 목소리였다.

구령이라도 내린듯이 전체 학생들이 앉음새를 고치였다. 모두가 교장선생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두손은 모아붙인 무릎우에 나란히 놓았다.

김원기는 한자한자를 나서 처음으로 것처럼 힘을 넘어 써보았다.

《제 1 장 제 1 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마지막 글자까지 정자로 쓴 원기였으나 자신없이 이윽도록 교장선생쪽으로 돌아서지 못하였다. 이때 교장선생이 봉남이를 이름찍었다.

《리봉남학생, 제 1 장 제 2 조를 외워보시오.》

흠칠 놀란 봉남이는 산비둘기알을 손안에 쥔채 벌떡 일어섰다.

《리봉남학생, 산비둘기알은 책상안에 넣으시오. 깨여지지 않게 조심히 넣으시오. 그리고 대답해 보시오.》

봉남이는 조심히 산비둘기알을 모자에 싸서 책상안에 넣고나서 대답하였다.

《제 1 장 제 2 조...》 리봉남은 교장선생처럼 몸을 곧게 하고 바지흔술에 랑손을 착 붙이고서 대답하였다.

교장선생은 원기더러 들어가라는 말도 봉남이더러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고 경건한 목소리로 1 조와 2 조를 읽었다.

온 학급이 구령도 없이 받아읽었다. 그 소리는 음악시간에 부르던 노래소리처럼 크게, 랑랑히 방안을 울리었고 반토굴교사의 창밖으로 울려 퍼졌다.

교장선생은 그때까지 그자리에 서있는 김원기앞으로 한걸음 다가서더니 따뜻하고 맥박이 뛰는 원기의 머리우에 한손을 얹으며 다정하기도 하고 엄하기도 한 목소리로 온 학급을 향하여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이 짙막한 부름속에는 우리 인민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전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창조한 아름답고 소중한 훌륭하고 고상한 모든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이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서 학생들은 자기가 불러보는 조국의 이름속에서 바다처럼 설레이는 백두밀림의 설한풍소리를 듣게 될것ियो. 우리 나라의 가장 훌륭한 아들딸들인 **김일성** 장군님의 전사들의 뜨거운 숨결소리를 듣게 될것이며 항일투사들의 배낭속에 고이 간직되었던 조국의 한줌 흙에서 풍기던 흙냄새를 맡게 될것입니다.

학생들, 나이 많은 사람인 내가 조국이란 무엇인지를 느끼기 시작한것은 유년시절 가난과 망국노의 설음속에서였습니다.

밤새 그칠줄 모르던 어머니의 물레질소리, 녹슨 화승총을 부여안고 통곡하던 의병들의 흐느낌소리, 고향을 떠나는 농민들이 부르던 아리랑의 구슬픈 선율, 멀건 죽그릇에 비낀 조국의 푸른 하늘... 나는

이때 망국노의 설음속에서 조국이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매 시각 마시는 공기와 따사로운 햇빛처럼 그것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수 없는 그 귀중한 품인 조국의 품, **김일성** 장군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직은 다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커서 조국을 지키는 싸움에 참가하게 된다면 그때 격전후 승리자의 자랑스러운 땀을 흘리며 조국의 밝고 찬 웅달샘앞에 무릎을 꿇고 앉게 될 때 학생들은 지금 내가 한 말의 뜻을 심장으로 느낄수 있을것입니다.

조국-이는 아버지 **김일성**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입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조국의 상징인 오각별 빛나는 람홍색 공화국기가 게양될 때에는 차렷 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이는것이고 애국가가 주악 될 때에도 우리모두가 승엄하게 차렷자세로 서는 것입니다. 조국앞에서 우리모두가 가져야 하는 기본자세는 차렷입니다.

학생들은 한생을 조국앞에서 <저는 성실했습니다.> 하고 가슴펴고 대답할수 있게 살아야 합니다.》

교장선생은 자기 마음속에 성숙되어있는 사상과 감정을 학생들이 그대로 받아들일수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것을 서운해하며 숙제를 내어주었다.

다음시간까지 조국앞에서의 자기의 포부와 결의를 써오라는 숙제였다.

그날 공부가 끝나자 원기와 봉남이는 서둘러 비행기 떨어진곳으로 향하였다.

《원기, 너 오늘 혼뜨검 났지 ?》

《내가 ?》

《나두 혼났어.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니. 조국앞에서 차렷이라는것말이야.》

《그래두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속이 찌르르 하더라야.》

《원기, 넌 감정이 풍부하구나. 그럼 너는 숙제에 시인이 되겠다구 쓰면 되겠다 야.》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벽돌굽는 노동자니까 난 집짓는 건축가가 되겠다구 쓰겠다. 봉남이 너는?》

《아직 모르겠어...》

이때 한 학생이 그들을 마주왔다.

원기와 봉남이는 그 학생을 통하여 자기 학교의 옛 축구주장 황영식의 영웅적최후에 대해 이야기들었다.

신기와 봉남이는 놀라며 마주보았다.

놀람이 끝나자 슬픔의 감정이 어린 그들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교장선생앞에

서 잘못했다는 뼈아픈 뉘우침을 받았다. 모든 소년들의 성장이 생활은 룡담이 아니라는 준엄한 진리의 체득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날 받은 충격은 바로 그것의 첫 체험에 속하였다.

교장은 학생들의 글을 간간히 보았었다.

《김형무학생.》

《옛》 형무는 벌떡 일어서더니 바라는바가 분명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아버지도 손님들에게 그런 웃음을 지어보이곤하였던것이다.

《형무학생의 글에는 철자법이 틀린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구 김원기학생.》

《옛.》

《건축가가 되겠다고 한 원기학생의 글은 괜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놈말찌꺼기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조선말을 사랑하고 정확히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기학생이 커서 설계하게 될 설계도속에도 파벽토가 끼여들어가서 좋은 집들에 흠이 갈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자기의 모국어 사랑하는데서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커서 군인이 된다면 바로 아름다운 우리의 조선말로 아버지 **김일성** 장군님의 충직한 전사가 되겠다는 선서를 하게 되는것이고 원쑤에게 내릴 불호령도 힘있는 우리의 말로 내리게 되는것입니다.

조국- 이 말속에는 우리의 아름답고 소중한 모든것, 작고 평범한 모든것이 담겨져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조국앞에서 성실해야 하는것입니다.》

교장은 가슴을 뻘뻘.

학생들도 선생을 따라 앓음새를 고치였다.

(이 글들은 학교에 오래오래 두겠습니다. 어른이 된 다음 찾아와서 보십시오. 조국앞에 성실하지 못하고서는 모교를 찾아올수 없을것입니다.》

...설계가 김원기는 담배갑을 꺼내었다가 어째서인지 도로 지갑속에 넣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장선생을 보게 된것은 50년 겨울의 어느날이었습니다. 바로 저의 학교마당에서였습니다.》

...마을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중대장 아놀드놈은 온 마을사람들을 학교마당에 끌어들였다. 원기와 봉남이는 학교의 파벽토무지속에 숨어서 자기 스승의 최후를 보았다.

밤마다 마을의 담벽들과 전주대에

《인민군대는 곧 돌아온다 !》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기운찬 구호를 내붙인 《청석산유격대》의 지하조직원이 바로 황철명교장이었던것이다.

마을을 강점할수는 있었으나 승리자로 될수는 결코 없었던 아놀드놈은 마을에서 제일 식자가 있는 교장의 항복을 받고싶어하였다. 지하조직의 비밀을 알아내려던 희망은 버리고 온 마을사람들앞에서 오직 한마디 《미국 만세》를 부르라는것이 그의 요구였다. 항복받는 승리자의 패감을 기어이 맛보고 싶었던것이다.

교장앞에 미제침략군 한개 보병분대가 총을 받쳐 들고 서있었다.

《...교장선생은 모여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찢어진 선생의 옷자락이 겨울바람에 마치 포연탄속을 뚫고온 기폭의 자락처럼 나뭇기였습니다.

선생은 가슴을 짚 펴더니 몸을 곧게 가지였습니다. 헌법시간에 조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몸가짐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이 순간 조국앞에서 공민의 기본자세는 차렷이라고 했던 스승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선생은 자기를 지켜보는 조국앞에서 <저는 성실했습니다.>하고 자기의 한생을 총화짓는것만 같았습니다.

미제침략군중대장놈의 강요앞에서 선생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학교운동장이 울리게 그렇게 크게 웃었습니다.

선생은 소리높이 **김일성** 장군 만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 를 불렀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선생은 중심을 잃으면서도 가슴을 펴고 곧게 서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치 귀를 기울이는듯이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주먹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놀드놈은 비록 교장선생을 총살할수는 있었지만 그의 넋을 꺾을수 없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사방에서 미국놈 통신선들이 끊어지고 군용차들이 하늘로 날아올라갔습니다. 마을에는 <청석산소년근위대>가 조직되었던것입니다. 이 때 오속에는 봉남이도 형무도 들어있었습니다.》

설계가 김원기는 이윽히 침묵하였다가 자기의 말을 맺었습니다.

《바로 황철명선생이 설계하는 저의 연필끝을 늘 지켜보았습니다. 너의 설계속에 파벽토가 섞이지 않느냐? 너는 조국앞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하고 있느냐. 이렇게 늘 묻곤하는것입니다.》

...그는 이야기를 끝내었다. 김원기는 불빛밝은 수도의 밤거리를 오래도록 말없이 내다보았다.

거리로는 행복한 생활이 벽치게 물결쳐 흐르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김 청 남

영미, 이 편지를 받고 놀랄 그리고 생각에 잠길 너의 곱고 큰 눈을 그리며 이 글을 쓴다.

너는 나에게 보내는 편지마다에 룡썬인 이런 글을 써넣곤했었지. 왜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없느냐, 지나치게 요구가 높은게 아니냐고...

그때마다 나는 웃었다. 눈이 높다, 까다롭다 하는 말을 두고.

사랑이란 무엇이나? 고백하지만 나는 공장의 한 청년을 사랑하고있는 지금에도 그 감정을 글로 옮길수가 없구나.

지금 나는 한 청년을 사랑하고있다. 이제 너는 이 편지에서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됐는가를 읽게 될것이다.

영미! 나는 잠시 펜을 놓는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여기는 조국의 서북단, 대상설비생산기지, 지금은 공장구내의 밤...활짝 열어놓은 창문으로 9월의 서늘로운 바람이 기증기의 동음, 구내차의 기적소리, 단야, 제관직장의 소음을 한꺼번에 실어온다. 나의 눈앞에는 잊을수 없는 추억들, 흘러간 나날들의 화폭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

...동그라미, 룡형, 곡선, 점... 또다시 점... 나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그림을 그리고있다. 나의 기분은 우울하다.

책상우에 퍼놓은 흰종이는 까맣게 되어 점들우에 룡형, 룡형우에 곡선을 그린다. 그것은 대학시절부터 생각에 열중하는 때의 나의 판습이다.

이 무정형의 그림들은 기관직장의 한 청년기사로 하여 생겨지는것들이다.

아침에 나는 옥순간호원에게서 기관직장의 한 청년기사가 갑자기 두귀를 잘 듣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갔었다.

정화순...이 녀성적인 이름을 가진 기사는 체격이 크고 몸의 근육이 잘 발달된 청년이었다. 나는 기사를 오래동안, 꼼꼼히 진찰했었다. 그랬으나 청전기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나는 뚝뚝한 직장장과 간호원의 묻는듯한 시선을 피했다.

침묵...

진찰뒤의 침묵... 확정 못한 진단, 아직은 있어 보지 않은 진찰이었다.

간호원은 놀라운 눈으로 나를 주시했다. 대학 전

기간 최우등생, 졸업후 병원에선 섬세하고 능력있는 의사로 인정되어온 나였다.

간호원이 먼저 침묵을 깨었다.

《련희선생, 어쩔가요?》

《안정이 필요해요. 곧 입원시켜야 하겠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끼며 나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었다. 하여 나는 우울한 기분으로 동그라미와 룡형등을 그리고있는것이다.

곡선, 룡형...나의 머리는 정화순기사에 대한 생각으로 터질듯이 무겁다.

창밖에선 바람이 분다. 퇴성... 비가 쏟아진다.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언제나 말없이 땅만 보며 걷는 기사, 어쩌서 나이가 들고 육체적으로 쇠한 사람들에게서도 흔치 않게 나타나는 그런 병이 젊고 건강한 그에게서 나타났을가?!

문득 머리속으로 한 생각이 섬광처럼 지나갔다.

고민?... 심한 고민과 지속적인 번민으로 인한?... 인정할수는 없으나 명백한것은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에게...

룡형의 한 번을 굶던 나의 손이 무섭게 떨리었다. 가슴속에선 심장이 열, 스물이 뛰었다. 그렇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현상태는 기사로서의 사색도, 열중도 그에게는 불리하다. 안정, 오직 안정만이 ... 안정만이...)

나는 급히 일어서서 밖으로 나왔다.

우르르 굉!... 우뢰소리, 폭우가 쏟아졌다. 나는 우산도, 비옷도 없이 기사장을 찾아갔다.

기사장은 방에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서는것도 감각 못하고 만나마 타들어간 담배를 켜채 책상우의 도면에 골돌하고있었다.

《기사장동지!...》

그제야 그는 얼굴을 돌렸다. 아직도 도수 높은 안경뒤의 눈은 도면에서 생각을 돌리지 못한 눈빛이었다.

《무슨... 웬일이요. 련희선생?》

나는 아침에 있었던 진찰, 정화순기사의 병상태, 그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어저로 말하였다.

《기사장동지! 정화순기사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수 없을가요?... 꼭 알아야 하겠어요.》

《.....》

조으는듯 반쯤 눈을 감고 묵묵히 듣고있는 기사

장의 얼굴표정엔 웬일인지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지금의 상태로는… 그가… 기사를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당분간 사업에서…》

《힘들겁니다.》

분명치 않은 기사장의 조용한 대답이었다.

무엇이 힘들다는 것인지 채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성급히 동의해버렸다.

《그래요. 지금 안정하지 않는다면 만회할 수 없는…》

《아니, 아니, 그를 안정시킨다는 것 말이요.》

기사장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어떻게 하는 말씀이세요?》

나의 걸고드는 어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기사장은 짙막하게 응답했다.

《동문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오!》

그건 사실이었다. 병원에 단 한번도 들린 적이 없는, 평범한 기사인 그에 대하여 나는 별반 아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를 알고 모름이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의 고민은 안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사장의 표정은 무거웠다.

《정기사의 고민은 제가 알면 안되는 문제인가요? … 하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손기척소리가 들리고 다부지게 생긴 중년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비에 흠뻑 젖어 물창봉이 된 룯철제 가량의 소년을 안고있었다. 그의 온몸에서는 물이 흘러 방바닥을 적시었다.

다부지게 생긴 중년남자는 의아한 기사장의 시선에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소년의 얼굴을 깨끗이 씻어주고 안락의자에 앉히었다.

《저는 산림보호원입니다. 이 공장에 정화순이라는 사람이 있는가요?》

《네, 우리 공장의 기사입니다.》

기사장은 강한 의혹의 표정을 지으며 의자를 권하였다.

《에이…참…》

불만의 표정을 그리는 중년남자의 이마에 굵은 주름이 지나갔다.

나는 정기사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을 느끼며 깊은 주름을 모으고있는 산림보호원의 얼굴을 겁먹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에게…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요?》

나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기사장도 허둥거리면서 이쪽저쪽 주머니를 누르며 담배갑을 찾았다.

《글쎄 폭우 내리는 숲속에 어린애를 혼자 놔두고 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참…》

기사장은 놀라 안경을 벗으면서 말했다.

《좀 자세히 말하십시오!》

…공장 사택지구 뒤산을 돌아보던 산림보호원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급히 뛰어갔다. 유치원가방과 물병, 나무총을 멘 소년이 풀우에 떨어 울고있었다. 산림보호원은 서둘러 소년에게 비옷을 씌워주고 품에 안았다.

《애야, 이름이 뭐지?》

《여-영-처-리.》

산림보호원은 울음을 그치지 못한 소년의 볼을 쓸어주며 달래였다.

《참, 똑똑한 애구나… 그래 넌 왜 유치원에서 도망쳐 혼자 산속에 왔느냐?》

소년은 머리를 저으며 부정했다.

《허, 그럼 누구하고 함께 왔었니?》

《삼촌.》

《삼촌?...너 삼촌 이름을 아니?》

《알아, 정화순이야…》

숲속의 폭우는 스산한 소리를 내며 쏟아졌다. 산림보호원의 품에 안겨 내려오는 아이는 벌써 캐득 캐득 웃으며 손바닥을 오그려 비를 받으며 장난질을 했다. 그리고는 밤일을 하고 돌아온 삼촌을 졸라산에 왔었다는 것, 재미있는 이야기는 안해주고 종이에다 알수 없는 그림만 그리고 있어서 자기는 꽃을 꺾으며 다니다가 오니까 삼촌이 없더라는 것, 그때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비가 와서 그만 울고말았다고 했다…

폭우는 기사장실의 창문을 두드리며 그냥 쏟아져 내렸다. 말을 끝낸 다부진 중년남자의 얼굴에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어리었다.

《저… 혹시 그에게 무슨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긴게 아닙니까? …》

나는 온몸이 떨리었다. 그에게 드디어 불행이닥쳐왔구나…

기사장은 비내리는 창밖을 묵묵히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미안하게 뵈었습니다.》

이윽고 기사장은 창가에서 물러서며 말했다.

《바쁘실텐데 아이를 맡겨두고 가보십시오.》

중년남자를 문밖까지 바래주고 들어온 기사장은 또 말없이 방을 걷는 것이었다. 그가 지금 무슨 생각

을 하고있는지, 어째서 그렇게 태연한지... 그것을 알수 없는것이 나는 안타까웠다.

《기사장동지, 정기사...웬일일가요?》

울상이 된 나의 얼굴을 마주보는 기사장의 표정엔 피륙 미소가 지나가는것 같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고 급히 수화기를 잡았다.

《기관직장에 대오, 기관직장!... 직장장동무요? 내 기사장이요. 화순기사를 내 방으로 보내오. 밤일 하고... 아니, 거기 나와있을거요. 찾아보오!》

수화기를 놓고 기사장은 또 느린 걸음으로 방을 걸었다.

나는 뭐라고 할수 없는 혼란에 빠져버렸다. 정화순가사가 공장에 나와있다니?! ... 기사장은 무엇인가 착각한것이 아닐가?! ... 분명 정기사라고 말한것 같은데... 나는 점점 미궁속에 빠져들어가는 때처럼 생각을 집중할수 없었다.

폭우 내리는소리... 텅! 텅! 철판 두드려대는 소리... 기사장과 나는 각기 자기 생각에 잠겨있다.

(기사장은 어째서 정기사의 고민과 병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의 알수 없는 행동에 대해 놀라지 않을까? 정기사... 그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고 했지...)

체격이 좋은 청년이 방으로 들어왔다. 정기사였다.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그였다.

《기사장동무, 나를 찾았습니까? ...》

정기사는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은 눈빛으로 기사장과 나 그리고 소년을 바라보았다.

《아니, 영철이! ...기사장동무, 이 애가 왜 여기에 와있습니까?...》

《삼촌! ...산에서 ...》

소년은 그에게 와락 매여달리며 와앙- 울음을 터뜨렸다.

기사장은 얼굴을 찌프리면서 그에게 의자를 내밀어주었다.

《앉게.》

그들은 마주앉았으나 서로 시선이 마주치는것을 꺼리듯 머리를 숙이고 담배연기들만 뿜었다.

무거운 침묵... 침묵속에서 그들은 서로 묻고 대답하는것처럼 나에겐 느껴졌다.

정기사는 소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서도 아무말이 없었다. 기사장도 그가 나가자 무거운 숨을 지을뿐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치료를 끝낸 나는 정기사를 생각하며 앉아있었다. 온종일 그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무거운 나였다. 두귀를 잘 듣지 못하는 기사, 아이를 잃어버리는 청년, 언제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얼굴, 기사장과 말없이 마주앉아 담배만 피우다가 나가버린 사람... 정기사...정기사...정기사...

그때였다. 문이 벌럭 열리면서 어떤 너자의 흥분한 소리가 어두운 방안으로 날아왔다.

《련희선생!...》

《?!...》

놀라 일어서며 나는 전등을 켰다. 문앞에 간호원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있었다.

《옥순이, 웬일이예요?》

《정기사가...글쎄...입원수속을 거부하면서... 막...》

나는 간호원의 흥분한 고운 눈을 보면서 침착하게 말했다.

《옥순이. 그렇게 당황해하면 안돼요. 우린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진 보건전사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돼요. 엄격하게 요구해야 해요. 자 같이 가요.》

밖으로 나가려던 나와 간호원은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언제 들어왔는지 그가, 정기사가 이마에 주름을 모으고 우리앞에 서있는것이였다.

나는 엄격한 시선속에 정기사를 끌어넣으며 다가섰다.

《기사장동무, 뭐예요? ...간호원의 말을 왜 듣지 않아요?》

정기사는 대답으로 나의 책상우에 무슨 종이를 뿌리쳤다. 건강검진카드였다.

《동무는 나의 건강에 대해서 심한 오진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으나 억양에선 심한 비난이였다. 나는 더 침착하게 그 사람의 화난 얼굴을 마주보며 머리를 저어 부정했다. 《그럴수 없어요!》

《뭐요?!...》

정기사는 탕! -책상을 힘껏 내리쳤다.

원주필이 한길이나 튀어올랐다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당장 다시 쓰시오. 난 건강한 사람이요. 뭐 안이? ...입원을? 귀가 잘 들리지 않는건 병적증상이 아니라는데 대학을 졸업한 의사인 동무가 모른단말이요?!》눈에서 불이 흐르는 정기사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간호원은 파랗게 질리며 막 울음을 터칠것만 같았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기사장동무.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중앙의료지원대예요. 새 7개년계획의 첫해과업수행을 위해 돌격하고있는 동무들의 건강에 대해서 어버이수령님

게서 깊이 근심하시고 계셔요. 동무는 우리의 요구에 그렇게 대해서는 안돼요!》

《… … …》

그는 머리를 꼭 숙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구내기 차의 기적이 길게 울렸다.

머리를 깊이 숙인 기사자의 얼굴에서는 방바닥으로 무엇인가 후드득 떨어졌다. 그는 우는가?! …어쩐지 나는 마음이 이상해져 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기사동무! …》

《… … …》

그는 오랜 후에야 머리를 들었다. 정기사자의 눈은 젖어있었다.

《저에게는 지금 의학상의 방조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믿어주기 바랍니다.》

조용한 어조였으나 이상하게 강한 그 무엇이 울려왔다. 나는 이상하게 강한 그것이 무엇인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명료하게 알수 있었다.

《옥순동무, 기사동무의 입원을 취소해야겠어요!》

《예?! …》

간호원은 놀랐으나 그도 곧 눈빛을 바꾸었다.

나의 지시가 옳다는것, 자기자신도 그것을 마음속으로 바라고있었음을 시선은 말하고있었다.

나는 기사에게 큰소리로 말했다.

《입원을 취소하기로 했어요. 그대신 야간정양소에 입소해야겠어요. 밤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양소규칙에 복종할것을 약속해야겠어요.》

《약속은 리행될것입니다.》

기사는 밖으로 나갔다. 맨머리바람으로 공장구내길을 머리를 숙이고 걷는 그 사람을 나와 간호원은 오래동안 창가에 서서 바라보았다.

그날부터 나는 정기사자의 생활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 밤이었다. 나는 아직 차도가 없는 정기사자의 귀가 걱정되어 정양소에 들리었다. 취침시간이 지난 뒤였으나 기사는 방에 없었다.

나는 간호원에게 물었다.

《기사동무는 어디 갔어요?》

웬일인지 간호원은 허둥거렸다.

《뒤산 정각으로 산보나갔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 찾아오겠어요!》

《좋아요, 같이 가자요.》

나는 단단히 추궁할 날카롭고 모가 난 말들을 곁들여 숲속 오솔길을 걸었다.

밤의 숲은 오묘한 선물로 차있었다. 달은 밝았다. 풀벌레들의 대합창, 나무잎들의 부드러운 설레임, 밤새의 울음소리…

문득 신비로운 가을밤 숲속의 선물을 지워버리며 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각이 가까왔다. 우리는 더 견지 못하고 우뚝 올라 서버렸다.

《놀라운 사실이군, 동무가 그런 제의를 하리라고는…다름아닌 동무가 말야! …》

격분한 정기사자의 목소리였다. 득-성냥 굶는 소리… 다시 굶는소리?

《동호, 난 기억하고있어, 학창시절에 늘 불타는 조국을 지키며 전선으로 출동하던 그 시절 대학생들의 랑만에 대해서 떠들던 동무를 말ियो. 랑만… 그래 랑만이 포탄이 튀는 전호속에만 있다고 생각하나? …어머니조국앞에 더 많은 땀을, 재능을, 힘을, 정력을 바쳐야 할 오늘의 생활에도 랑만은 있어야 해! …》

기사장의 례의 무거운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화순이, 랑만에 대해선 찬성이지만 동무가 그 몸으로 특수기관연구를 계속한다는것은… 반대야. 이번에 다시 실패하면…》

《건강, 실패, 책임… 요란한 변증법이군.》

억이 막힌듯 기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잘 알겠습니다. 기사장동무야 상급이니 행정권으로 얼마든지…》

기사장의 가벼운 웃음소리…단들이 마주앉은 동창생친구의 급격히 변한 말투에 기사장은 웃는것이였으나 어쩐지 자연스럽지 못했다.

풀벌레들의 스프루거림, 나무잎들의 명상적인 설레임소리가 다시 들렸다.

《동호, 우리가 무엇을 해놓았소? …요람에서부터, 유년시절부터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우리 세대가 말ियो! 어렸을 때는 미쳐 다 몰랐다 해도 대학까지 나오고 이렇게 자란 오늘에야 …어버이수령님께, 어머니조국앞에 너무나 해놓은 일이 적다고 생각하오!》

《… … …》

《나는 요새 잠을 못자고 생각하네. 그래 내가 창건 30돐을 맞는 어머니조국앞에 무엇을 해놓았는가?! …도대체 바친것이 무엇이 있는가말ियो? …생각할수록 부끄러워 머리를 들수가 없단말ियो! …》

《화순동무! …》

간호원과 나는 더 견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고 말

았다.

영미야! 나는 그날에야 비로소 모든것을, 뜨거운 그의 지향을 알수 있었구나!...

그는 어머니 조국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아는 사람이였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몸으로, 탐구하고 열중하면서...

영미야, 아이를 잃고 왔던 기사... 입원을 거절하면서 눈물을 떨구던 기사... 그가 평범히 흘러가는 하루하루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보내는지 너도 깊이 생각하리라 믿는다.

밤은 깊어갔다. 우리는 정양소의 현관계단에서 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기사는 오랜후에야 생각에 잠긴채 오솔길을 천천히 내려왔다.

머리를 숙이고 계산을 오르던 그는 우리앞에서 우뚝 멈추어섰다.

《아니?!...》

순간 나를 알아본 그는 머리를 숙였다.

《약속을 리행하지 못해... 안됐습니다.》

《.....》

나는 그렇게 고르고꼴랐던 모난 말들을 할새 없었다.

푸른 달빛을 받아 더욱 수척해보이는 기사의 생각에 잠긴 얼굴을 나는 뜨겁게 바라보았다.

《쉬셔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기사는 조용히 침실쪽으로 걸어갔다.

《참, 과학원에서 편지가 왔더군요.》

정기사는 말없이 편지를 받으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

《.....》

무엇인가를 더 도와주고싶고 힘을 주고싶은 나였다.

그는 나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고맙소.》

그날밤 자리에 누운 나는 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어쩌서? ...무엇때문에?... 왜?... 의사의 의무를 망각하고 그의 요구에 응하게 되는것일까? 무엇때문에 나는 약속을 리행하지 않은 그를 부드럽게 대하는것일까? ... 종시 나는 자기 감정을 진정짓지 못한채 새벽의 곤잡에 빠져버렸다.

일주일이 지난 밤, 정양소의 그 층계에 나는 또 성이 나서 서있었다. 정화순기사가 또 약속을 어긴

것이다.

《옥순동무, 왜 그를 통제 못해요!》

나는 정각쪽을 바라보며 간호원을 나무랐다.

《벌써 두번째나 약속을 어기고있어요!》

《두번째가 아니예요. 그는 정양소에 입소한 여태 단한번도 제시간에 들어와 취침한 때가 없어요!》

나는 놀랐다. 순진하고 나 어린 간호원이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단말인가!...

《동무는...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간호원은 고백했다.

《련희선생, 그는 매일밤 늦게 돌아와서는 그때마다 늦게 되는 사연을 말했어요. 기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시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거예요!》

나는 간호원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오늘저녁부터는 약속을 어기지 않고 정양소 규를 지키기 위해 탁상시계까지 가지고 갔어요. 눈앞에 놓고 일하겠다고...》

누군가 숲속 오솔길을 내려왔다. 도면을 말아 권정기사였다.

《또 약속을 지키지 못했군.》

기사는 무슨 뜻인지 의미있게 우리의 손을 차례로 잡았다. 기사의 온몸에서는 싱싱한 풀냄새와 환희가 물결쳤다.

《기사동무, 탁상시계는 어땠어요?》

간호원이 손시늉을 하면서 물었다.

《아, 시계를 잊고왔군.》

기사는 큰소리로 웃으면서 산길을 다시 올라갔다.

《련희선생, 그는 시계까지 잊고 왔군요!》

《.....》

눈앞이 불시에 뿌연게 흐려지면서 소리없이 눈물이 흘렀다.

(뜨거운 사람... 훌륭한 사람...)

나는 그 자리에 서있을수 없었다. 산길...밤의 숲속 산길을 그가 혼자 걷게 하고싶지 않았다.

《기사동무!...》

나는 그를 부르며 그가 걷고있는 산길을 뛰어갔다. 우리는 동시에 정각에 이르렀다. 정각의 한쪽 구석에서 탁상시계가 번쩍이었다. 시계는 힘차게 돌고있었다.

나는 탁상시계를 안고 정기사와 나란히 산길을 걸었다.

《좋은 밤이요.》

정기사의 흥분한 목소리였다. 문득 나는 의사의 립장을 또 망각해버린 자기를 생각하고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참, 어쩌면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될가?...》

《그건 우리가 같은 세대이기때문일거요!》

《아이?!...제 말을 들었어요?!》

기사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곁었다.

《오늘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하오.》

나는 기뻐다. 의사로서 그리고 또 ...나는 환회에 넘쳐 말했다.

《화순동무, 도면을 완성했지요?》

《.....》

《호, 또 오진인가요?》

《정확한 진단이요, 련희동무!...》

《예?!...》

《이 밤, 어머니조국을 두고... 우리의 생활을 두고 끝없이 생각에 잠기고 싶습니다.》

《어쩌면...어쩌면...》

달밤의 숲은 신비롭고 아름답다. 우리는 검푸른 조국의 밤하늘, 달과 별들을 끝없이 바라보며 말없이 서있다. 공장쪽에서 밤구내차의 힘찬 기적이 고요속으로 올라가고 조국의 밤은 깊어간다...

공장의 밤도 깊어가고있다.

영미, 난 이 이상 더는 글을 옮길수가 없구나. 하지만 감수성이 풍부한 너는 벌써 이 글을 보고 내가 왜 그 청년을 사랑하게 됐는지를 쉬이 짐작하리라 믿는다. 남자로서 매력도 없고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그를말이다.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어리광만 부리며 자라온 나, 시대앞에 서야 할 자기의 위치를 두고 한번도 깊은 사색에 잠겨보지 못했던 나에게 정화순기사는 것처럼 큰 충격을 준것이다.

영미야, 이제 며칠 있으면 뜻깊은 공화국창건 30돐을 맞게 된다. 먼 후날에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을 두고 정말 영웅적인 사람들이였다고 이야기하게 될것이다. 그렇지만 너나 내가 과연 그런 사람들이였다고 어머니조국앞에 떳떳이 말할수 있겠는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영미야, 후세에 길이 전설적인것으로 전해질 이 시대에 우리가 영원히 빛날 조국을 두고 무엇을 했는가를 자신있게 이야기할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것을 진심으로 믿기에 희열을 느끼며 이렇게 펜을 놓는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창작되던 때의 몇가지 이야기

리 원 우

아동문학작가인 나는 자주 소년단원들의 모임에 초대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한다. 얼마전에 나는 어느 한 학교 소년단원들의 우등불모임에 초대된 적이 있었다.

그날은 바로 보천보전투승리기념일인 6월 4일이었다. 학교운동장의 한복판에서는 우등불이 활활 타오르고있었고 분단별로 정렬한 소년단원들의 얼굴에는 엄숙한 표정이 깃들어있었다.

우등불모임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중의 한 대목을 랑송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개인 밤하늘에서는 별들이 마구 뿌려놓은 은모래처럼 빛을 뿌리고있었다.

귀여운 소녀의 시랑송은 계속되고있었다.

나의 눈앞에는 문득 잊을수 없는 추억이 떠올랐다.

불타버린 전호들, 떠도는 매캐한 포연, 방금 전투의 불바다가 흘러가버린 고지우에 전사들이 모여있었다.

누군가 조용히 읊조리는 시구절, 총을 쏜 병사들의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시구절들...

전쟁시기 나는 이런 시랑송모임에 많이 참가도 했고 또 이처럼 격식없이 진행된 시랑송모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곤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가들은 인간정신의 기사로서 자기들의 작품에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견결한 투지와 종국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뚜렷이 표현하여야 하며 자기들의 작품이 싸우는 우리 인민의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며 그들을 최후의 승리로 고무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전쟁시기 우리 독자들을 고무했고 오늘날도 역시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나는 추억을 더듬어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창작되던 때의 몇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1946년 4월말경 나는 어느 한 시인과 함께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창작에 열중하고있던 시인 조기천을 찾아가간 적이 있었다.

그가 글을 쓰고있는 방안에 들어섰을 때 우리들의 눈에 먼저 띄운것은 책상우에 정중히 모셔진 항

일무장투쟁시기의 젊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었다.

일제야수들에게 무참히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의 정을 안은 그는 혁명적인 작품을 쓰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피어린 자욱이 어려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대하여 서사시를 쓰고싶은 욕망이 불같이 타올랐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험한 밀림과 진펄을 헤치면서 해방직후에 백두산에 올라 산체험을 얻기 위하여 탐구의 길을 걸었다.

백두산으로 오르던 시인의 한걸음 한걸음은 그대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빛나는 송가의 첫시작이었다.

삼천만이여!

오늘은 나도 말하련다

《백호》의 소리없는 웃음에도

격과 솟아 구름을 삼킨다는

천지의 푸른 물줄기로

이 땅을 파몰아치던 살풍에

마르고 탄 한가슴을 추기고

천년 이끼오른 바위를 버루돌 삼아

곰팡이 어렸던 이 붓끝을

육박의 창끝인듯 고무며

이 땅의 이름없는 시인도

해방의 오늘 말하련다!

.....

그의 머리속엔 청소년시절부터 들어온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설적이야기가 백두의 산발마다에 비껴 이렇게 나래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서사시를 기어코 쓰기 위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나 귀중한 이야기들을 들었으며 어느 날 한 투사로부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진 귀중한 사진을 받았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존귀하신 영상을 자기가 집필하는 책상우에 정중히 모시고 서사시 《백두산》의 초고를 썼던것이다.

시인의 심장은 이처럼 티없이 밝고 열렬하였다.

어느때나 보면 진달래를 수놓은 꽃보에 서사시의 원고들을 소중히 싸안고 우리들을 찾아와 의견을 듣던 일을 잊을수 없다.

원종이에 연필로 또박또박 서사시의 초고를 쓰곤 하였는데 만년필로 적으면 고칠 때마다 줄을 그어 원고가 어지러워지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의 원고는 충성심에 티가 없듯이 이처럼 언제나 시인의 마음을 엿볼수 있는 거울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시랑송을 잘한다고 하였다.

서사시 《백두산》을 창작한후 합평을 할 때면 원고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기는 늘 즐겨 랑송하곤 하였다.

머리시를 다 읊고 1장에서 2장으로 들어가는동안 그는 글귀 하나 틀리지 않고 자기가 써놓은 그대로 랑송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그가 마지막 땀을시까지 다 랑송하였을 때 아무리 자기가 쓴 작품이라 하더라도 글귀 하나 틀리지 않게 전 작품을 환히 내려다보면서 끝까지 랑송한데 대하여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가 감탄을 표시하자 그는 웃으며 수령님을 흠모하는 자기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인데 틀리지 않는게 응당할 일이 아니냐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서사시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우리는 서사시가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하게 되었기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다고 이야기하여주곤 하였다.

그러자 그는 아니라고 손을 저으며 자기의 고충을 말하곤 하였다.

작품을 막상 정서하려고 다시 보면 표현과 내용에서 고쳐야 될것도 있는것 같고 그대로 두어도 일

없을것 같은 문제가 있어서 의견을 들어보곤하는데 그것을 명확히 짚어주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없다고 그는 이야기하였다.

한번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아야 될것 같아 요새는 자나깨나 그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라일로 그처럼 바쁘신 수령님께 어떻게 그런 일로까지 근심을 끼쳐드리랴 싶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다는것이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그날은 1947년 2월이라고 생각되는데 신문에 서사시 《백두산》이 발표된것을 읽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시인 조기천은 자기의 소원대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던것이다.

서사시 《백두산》을 쓴 시인이 혼자서는 풀수 없는것들이 있어서 가르치심을 주실것을 소원하여 찾아왔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하시던 일을 뒤로 미루시고까지 만나주시였던것이다.

한편의 서사시까지 친히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심으로써 작품이 완성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신 그 위대한 사랑!

시인은 그날의 그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하곤 하였다.

그처럼 충성으로 불타오르고 지칠줄 모르던 그의 심장은 너무도 일찌기 고동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노래는 오늘도 혁명의 새세대들의 가슴속에 이어져 끝없이 나래치고 있다.

영원히 공화국 기발아래

김 시 권

홀어진 락엽들이
눈무지우에 얼어붙은 언덕우에
마을사람들 줄지어 섰다
미제놈들의 총부리앞에
찢어진 옷설을 눈바람에 날리며
가슴 뿔뿔이 높이 쳐든 얼굴들

미제 장교놈은 날뛰다
마을에 공화국기발을 띄운
그 사람을 찾아 독이 오른 두 눈알
-안나오면 모두 총살시킬테다
승냥이 소리에 눈바람도 숨죽이는듯
침묵이 무겁게 흐르는 사형직전

사람들을 헤치고
조용히 앞에 나서는 사람
그는 마을의 평범한 농민
새벽이면 이슬젖은 발둔덕길을
먼저 걸으며 바지가랭이 풀물에 젖던 사람

-기발은 내가 띄웠소!

순간
온 마을의 눈길이 그리로 쏠린다
높뛰는 가슴들
온 마을의 생명을 지켜
그가 나섰음을
어찌 모르랴.

맨 끝에 선 한 녀교원
그는 옆에 선 소년의 언 뺨을
자기의 뜨거운 품으로 녹여준다
사랑어린 미소로 어린것의 눈을 굶어보며
그도 나선다
눈무지우에 찍힌 그 자욱을 따라...

담배대를 쥔 한 로인
흰 수염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천천히 나선다.
가을마다 애국미를 신고가던
성실한 그 걸음으로
앞서나간 사람들을 따라섰다

어린애를 업은 아주머니도
전선에 군복을 지어보내던 마을처녀들도
원쑤가 앞에 있는 이 시각
잊을수 없었다, 정녕 꿈결에도
제집 대문가에 높이 세웠던 공화국기발
영원히 그 기발밑에 살고싶은 마음들이
나선다, 앞선 발자욱들우에
저저마다 발자욱을 덧 찍으며

온 마을이 섰던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남은 나어린 소년
미제 장교놈은 기뻐다
아이지만 그래도 한사람이 남았으니
가늘게 짓는 그 실눈
-얘야, 너만은 저 기발을 띄우지 않았지?!

침묵...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녀선생도 마을사람들도 소년을 바라보고
장교놈의 입가엔 웃음이 비끼고
침묵...
긴장한 침묵이 흐들뿐...

소년은 원쑤앞에
머리를 가로저었다.
천천히 교복의 단추를 벗기는 작은 손
힘차게 풀어헤치는 앞가슴
소년은 가슴속에서 기발을 펼쳐들었다

아, 가장 준엄한 시각에
소년은 불타는 마음을 달리 보여줄수 없었다
그 어떤 총칼로써
장군님의 아들딸로 영원히 살려는
저 사람들을 갈라놓을수 있으랴
하나로 뭉쳐 솟아오른 조선의 억센 힘을...

미쳐날뛰는 미제승냥이앞에
성벽처럼 일떠선 불굴의 인민이여
가슴가슴에서 일어번지는 열풍을 타고
세차게 휘날리는 소년이 추켜든 공화국기발
그것은 조선의 영원한 얼굴
그것은 인민의 영생하는 삶이었어라

유치원 창가에서

정 덕 철

지금은 한낮
교대를 마치고 돌아오는 퇴근길
딸애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유치원 창가부터 찾았네

낮잠을 잘 자서 빨간벌을 탔노라고.
어제밤 자랑을 늘어놓으며
온 집안에 웃음꽃을 피우더니
꽃물레도 배그네도 멈추어놓고
딸애는 오늘도
선생님에게 칭찬받을 낮잠을 자네

어린것들이 귀여우시여
아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
미소를 지으시고 굽어보시고
꿈속에서도 그 품에서 응석을 부리는듯
귀여운 얼굴에 피어나는 쌍보조개
썩근썩근 흐르는 고르로운 숨소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르며
나는 그만 어머니라는것도 잊어버리고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손님처럼
부러운 마음 안고 창가를 거닐고
맑은 창문으로 딸애의 얼굴에
웃음꽃에 싸인채 다가오네

새참을 차리는 일손을 도와
알알이 잘도 익은 과일들을 피어놓고
맞나는 우유도 데워놓고
침실을 돌아보는 교양원의 발걸음소리
혹시 잠들지 않은 애는 없는가
마루방을 조용히 울리며 지나는 발걸음소리
내 가슴에 쿵쿵 메아리를 남기네

어린시절
어머니 따라 연자들을 돌리던 밤
연자체에 기대여 쪽잠을 잤다고
피가 흐르도록 매맞던 이 부엌데기가
귀를 기울이네

낮잠을 잘 자고난 애에게
먼저 안겨주자 속삭이며
행복의 종이별 따내는
교양원들의 가위질소리

마음속에 새길수록 설레는 이 가슴

눈굽을 닦으며 바라보네
낮잠이 끝나면 또 얼마나 놀았을가
내 딸애의 몸무게를 달아보려
해빛에 저울논금 서둘러 바로잡는
소아과 너의사의 미소어린 눈매를

궁전무대에라도 나가는 아이처럼
엄마 손잡고
외가집에 나들이가는 아이처럼
저것들에게 언제나 고운옷 차려주시려
하늘높이 옷공장도 따로 세워주시고
저것들의 입맛까지 헤아리시여
새 과수동산도 펼쳐주시고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구절마다엔
사랑의 새 력사 새겨주신 따사로운 손길

언제 한번 편히 쉬여보지 못하시고
공장과 농장마을 찾고찾으시여
지새우신 그 많은 귀중한 밤들을
저것들의 단잠으로 바꾸어주신
정녕 수령님의 그 은정 아니였더면
내 어찌 바라볼수 있었으랴
저렇듯 기쁨만을 안고
행복의 꿈을 꾸는 딸애를

아, 어느 하루밤도 불쌍한 자식에게
편한 잠자리 주어보지 못하고
나의 언손을 갈라터진 손으로 감싸친채
차라리 영영 눈을 감아버리자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내 오늘
낮잠을 잘 자서 칭찬받는 딸애를
저 꽃침대 계단이불에 싸안고
복반은 어머니 되어 흐느끼네

희망찬 앞날을 마음껏 꿈꾸는 숨결소리
강산에 넘치는 즐거운 노래소리
가슴가득 새겨안고서
수령님 펼쳐주신 이 고마운 세상을
우리 세상이라 목메여 부르며
아버이수령님께 큰절을 드리네

맑은 하늘 우러르며

김재윤

내 어려서부터 쳐다보던
조국의 맑은 하늘도
다시 우러르면
눈시울 뜨거워와라
아, 어버이수령님의
한없는 사랑이여

높이 솟은
대야금기지의 첼탑들
만풍의 파도 일렁이는
황금전야
굽이쳐 흐르는 관개수
그 어디나
아, 끝없는 사랑

구리빛 팔을 휘두르며
출근길에 오른 용해공들의
호탕한 웃음소리에도
아버이 그 사랑은 넘쳐나고,
빨간 책가방을 메워주며
아이들을 바래여주는
달덩이 같은 녀인들의 얼굴에도
은혜로운 해발은 물결쳐라

이 땅우에 흐르는 낮과 밤도
태양의 빛살이 있어 하나같이 밝아
이 가슴 행복에 뜨거워
불을 적신다

진정 그 어떠한 해빛속에
이 땅이 움트고 꽃피고있기에
그리도 밝은 웃음, 맑은 대기가
이 강산에 차고넘치는가

은혜로운 그품
그 해발속에서 자라나는
한그루의 나무, 우짖는 새
한가닥 내물에도
어버이사랑은 깃들어
영광으로 빛나는 내 나라

아, 짙신자옥에 설음의 피눈물이 고이고
비내리는 황토길우에
한숨지며 쓰러지던 목숨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우러르는 가없는 하늘
가꾸는 향기로운 대지가
떨어져 살수 없는 조국으로 되었나니

쏟아지는 쇠물폭포
끝없는 기계바다의 음향도
주체의 이 땅을 노래하며 메아리치고
인류 수천년에 아끼고 다듬은
아름다운 말과 글자들로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아로새긴다

오,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의 다함없는 이 영광이여
빛나는 우리의 삶이여
가슴에 넘쳐나는 행복의 노래
한없는 감사의 눈물은 소리없이 흐른다

맑고맑은 조국의 하늘 우러르며...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 내 다시 우러르며...

꽃시절이 왔구나

김 윤 호

아아, 잘도 왔구나
우리의 귀염둥이들이여
진정 반갑구나
우리의 꽃사절들이여

앞길을 막으려는
구름장을 헤치며
날개를 찢으려고
모질게 덤벼드는 광풍을 뿌리치고
드디어 예까지 왔구나!

사시절 겨울을 모르고
따사로운 사랑의 꽃밭에서
고이고이 자라고
진달래마냥 아름답게 피어난
너희들 꽃사절이 왔구나

이역땅 회오리바람을 이겨내면서
해빛을 우러러 조국을 그리는 우리에게
어버이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득 싣고
여기 일본땅에 첫발자국을 내디디었구나

사랑스럽구나
우리의 꽃이여! 나비여! 꾀꼴새여!
어디 손을 잡아보자
어버이수령님의 넓은 품에 안기였던
너희들의 그 뺨을 비벼보자

땅은 비록
수만리 바다와 하늘을 넘어야 할
일본땅 쓸쓸한 고장이건만
그들 모르는 해빛으로 하여
삶의 보람을 찾고
그 사랑에 행복의 나날을 이어가는
60만의 충성의 심장들
뜨겁게뜨겁게 불타거니

날에 달을 이어

달에 해를 겹쳐
영광의 노래
뜨거운 감사의 노래로
우리의 세월은 수놓아졌건만

평양 그 넓은 궁전에서
기쁨껏 노래 부르고
행복겨워 춤춘다는
가슴 높뛰는 소식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주체예술의 빛발을 뿌리고
온 천지를
감격과 흥분으로 뒤흔들었다는 소식

전파를 끌라가며
밤늦도록 귀를 기울이며
가슴설레이며
평양으로 평양으로 달리던
우리의 마음이였더란다

진정 왔구나 오늘에야 왔구나
우리 마당 철 넘어 지였던 진달래가
오늘에는 되피어나고
꽃떨어졌던 목란나무에
다시 정기어린 꽃이 피어
웃음을 띄우거니
진정 진정 반갑구나
우리의 꽃사절들이여

우리 오늘
너희들 꽃시절을 맞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다함없는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꽃다운 춤으로 엮어드리리
아름다운 노래로
삼가 엮어드리리!

공장대학정원에 밤비는 내리고...

계 훈

공장대학 정원에 밤비는 내리고
푸르른 형광등 불빛아래
말없이 홀로
우산을 받고 선 소조원처녀

그 뉘를 기다려 이 밤을 지새는것일가
밤은 깊어만 가는데
받고 선 우산을 다독여주며
밤비는 내리고 내리는데...

그 무슨 사연이 이 밤에 있는것일가
불빛 환한 창가에 다가서서
가만히 귀기울이다도
이따금 미소를 머금은 그의 모습

그래그래 오늘 이 밤은
3년을 고스란히 보살펴 이끌어준
작업반 열두명 정깊은 한가정이
공장대학 졸업시험 치는 날

돋보기를 낀 로장으로부터
단발머리 배전공에 이르기까지
작업반의 딸이 되어 누이가 되어
《학부형》이 되어온 보람큰 나날

쇠물빛이 너울대는 쇠정판우에
생석회덩이로 공식을 풀어가며

밤새워 복습장을 검열할 땐
어찌 보면 그때는 엄격한 너선생

생각할수록 행복은 넘쳐
다시 또 창밀에 다가서는 소조원처녀
불빛 비친 화단의 집중화처럼
발돋구어 교실안을 엿보고도싶고...

틀림없어 석심한 저 목소린
작업반장동무의 대답이구나
아이참, 저렇게 청산류수인데
왜 그렇게 속태웠을가

후둑후둑 우산 치는 비방울소리
가슴을 치고치는 기쁨의 비방울소리
처녀는 그저 어쩔줄 몰라
창결을 걷고 또 걷고...

이제 잠시후면
기다리던 저이들은 달려나올것이니
공장대학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쁨의 이슬젖은 처녀앞에 달려나올것이니

소조원처녀의 기쁨의 마음인양
활짝 편 저 우산속에
억척스런 어깨들은 모여서리라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릴 공장으로 가리라!

만경대에 드리는 월계관

할라 알 하쥐

만경대,
나는 그대에게
월계관을 올리리라
피광나무 꽃테 두르고
날개돋친 나비무늬
혁명업적 자랑하듯
높이 솟은 천고의 수림을
담아 엮은 월계관을
록소석과 진주를 다듬어
금빛 찬란한 봉밀천월계관
장미꽃잎우에 선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노래가락을 새긴
월계관
향기 풍기는 아침에
훈풍을 맞아 울려나오는
봄노래 담고
무지개비낀 하늘의
청신한 빗발을
바탕색으로 한 월계관

만경대,
나는 그대를 위해 엮으리라
서광이 비낀 푸른 하늘을
향기 그윽한 장미색보석고리
섬세하고 은근한 빛갈의 목걸이
새별처럼 빛나게 엮으리
백전백승의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위하여
티없이 깨끗한 량심으로
충성다하는
인민들의 마음담아
월계관을 엮으리라
나는 충성다해
만경대
그대의 이름을 금문자로
새겨넣으리라

(필자-레바논에 있는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녀성소조 책임자임)

오직 한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 감사를!
오직 한분 고무적인 령도자 **김일성**주석께 영광을!

나빌 알 하쥐

봄날
향기 그윽한 아침
밝아오는 려명을 맞아
새들은 날아드네
꿀벌들은 서로 불러 화답하며
꽃을 찾아 날고
탐스런 벼포기우에
꽃들이 활짝 핀 파원우에
금나비들이
반짝이며 돌고 돈다네

날아든 새
꿀벌과 나비들에
인사를 보내네

보느냐 가쁘히 줄지어 푸르싱싱한 벼포기
붉고도 고운 파원의 만발한 꽃들
듣느냐 저기 큰 공장들에서 울려오는 기계소리

오직 한분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 주석께 감사를!
오직 한분 고무적인 령도자이신
김일성 주석께 영광을!

아름다운 새야
우리 함께 어서 논벌로 가자
보느냐 아름다운 조선의 녀인들
칠현금을 타듯이
모를 쫓는 그들의 날렵한 숨씨

크낙한 기쁨속에
미래를 창조해가는 그들의 유쾌한 모습
감격의 물결이 우리 가슴에 밀려드네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수령님
고무적인 령도자이신
김일성 주석
그이의 품에 안겨살기에
그들은 그토록 행복하다네
친근한 새야
이 락원을 일러 조선이라 하느니

친구여
예가 바로 혁명의 요람 만경대
위대한 수령님의 고향이여라
고무적인 령도자 경애하는 수령님 계시기에
포악한 왜놈들이 망하고
침략자 양키가 굴복하였네
제국주의자들의 신화가
산산이 조각났네

조선의 새, 너는 보리라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넓고 아름다운 논밭들
새힘으로 태동하는 봄기운
과원들은 기쁨에 설레이고
집집마다 행복이 넘치네
전야에는 붉은 열매 맺으려니
이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것
아름다운 저 궁전들
조선의 행복한 어린이들의것이여라

우리 어서 이 소년에게 물어보자
너 홍안의 소년아
농촌학교에는 어떤 학급들이 있는가
작은 새들이 조잘거리듯
밝은 창가에서
너희들 글읽는 소리 들리누나
나의 친근한 새야
누구에게 물으랴
락원이 어떻게 미루어졌는가를
누구에게 물으랴!
행복이 어떻게 왔는가를
오직 한분 경애하는 수령
오직 한분 고무적인 령도자
오직 한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 감사!

아름다운 새야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 장군님은
조국통일 위해 계속 혁명으로 이끄시네
성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 남녘땅우에 전쟁준비에 미쳐날뛰는
총성은 그칠새 없이 울리고
남녘 인민들 무권리속에서 쓰라린 고통과
죽음을 당하네
양키들과 그 앞잡이놈들은
여기 북녘땅우에
푸르려 설레는 논밭들
푸른 하늘
붉게 익은 과원을 짓몽개려 발악하네
그러나 수령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두려움 모르고 투쟁을 계속하여라

행복하여라
봄은 또다시 찾아와
벼포기들은 푸르싱싱 잘도 자라고
꽃봉오리 피고 또 피어나거니
인민들은 노래를 드리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영광의 노래 드리네

조선에 꽃은
계속 만발하여라
싸우는 세계인민들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
그이는 우리 위해
이른봄의 꽃을 피우시게 하시였네
싸움을 잘하라
더 힘있게 투쟁하라고
우리는 언제나 만단의 준비를 갖춘 인민
남녘에 웅크리고있는
양키놈들을 쳐엎애리

위대한 우리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기치아래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아가리
김일성 주의기치따라
기어이 다가올 승리를 향해
우리는 달음쳐가리라!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의 려명이 밝아오고
세계혁명은 승리하리라!

(필자-레바논에 있는 《**김일성** 주의연구위원회》
지식인위원회 위원장임)

조국과 조국애

석 윤 기

사람마다 조국을 사랑하는 까닭을 다 아는것은 아니다. 조국이라는 표상자체가 어렴풋한 그러한 시절도 있는것이다.

나는 어찌다가 출생지를 쓰게 된다거나 지난날을 더듬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강쪽에 버드나무가 늘어서고 뒤통산에 송기를 벗기운 솔밭이 모퉁한 동네가 눈앞에 떠오르곤한다. 그 동네 한복판에 몇백년을 묵었다는 느리나무가 서있는데 구새먹은 밑둥에서 배암이 기여나와 가지를 타고 올라가면 어른들은 또 무슨 열병이 돌거나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하늘을 살폈고 아이들은 옥을 얻어먹으면서 돌팔매질을 하였다.

어려서부터 이국산천을 많이 떠돌아다닌 나에게 인척혀진 최초의 조국의 표상은 아마 이러한것들이 아니었던가싶다.

그러한 조국을 나는 사랑했고 그리워했다. 무엇 때문인지 그것은 나도 몰랐다. 조국이니까... 굳이 말한다면 이것이 리유일것이다.

사실 조국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리익도 영예도 안줄뿐아니라 오히려 천대와 모욕밖에 가져다주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도 그 조국의 영예, 그 조국의 리익을 위하여 목숨을 내바친 허다한 애국렬사들의 실례를 우리 조국의 오래인 력사는 간직하고있다.

외래침략자를 반대하여 영웅하게 싸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형벌을 들씌우며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하여서는 외적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는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통략당하고 마침내는 일제에게 주권마저 빼앗겼던 우리 나라이다.

이런것을 아울러 생각할 때 나라를 위하여 뿌려진 수많은 피와 땀이 단순히 구새먹은 느리나무밑둥에서 배암이 기여나와 사람들에게 닥쳐올 불행을 예고하는것과 같은 가난하고 락후했던 그러한 조국이 아니라 빛나는 조국, 부강하고 번영하는 래일의 조국을 안타까이 그러는데서 오는 사랑의 열정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념원이었을뿐 그 어떤 형태도 표상도 없는 어설피고 회의적인것이었다.

지난날 뜻있는 선조들이 진실로 안타까움에 몸부

림쳤고 피와 목숨을 바치면서도 그 참된 보람과 의의를 찾을수 없었던 그 처절한 비극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조국과 조국애에 대한 리념을 못가진데 있었다고 볼수 있다.

참된 조국, 인민에게 진정한 삶과 행복을 안겨주는 그러한 조국을 위해서라면 비록 조국이 미래의 조국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의, 한생을 바칠것이며 모든 귀중한것을 조국을 위하여 내바치기를 서슴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인민들은 그러한 조국을 못가졌을뿐아니라 그러한 조국에 대한 리념과 표상자체를 못가지고있었다. 이것은 오래인 우리 인민의 력사가 제기하는 가장 절박한 숙제였다.

조선인민의 수천년에 걸치는 이 력사적숙원을 빛나게 해결하신분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이시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된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아득한 옛날부터 반동적통치배들이 썩워놓은 조국의 신비한 너울은 벗겨지고 인민들에게 민족적존엄과 참다운 삶,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조국일반이 아니라 사회주의조국이며 그 조국을 위한 사랑과 투쟁은 애국주의 일반이 아니라 사회주의애국주의라는것이 비로소 뚜렷하게 밝혀졌다.

인민을 위한 진정한 조국, 사회주의조국을 위함이라면 그 누가 목숨을 아낄것이라. 우리 인민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따라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용감하게 떨쳐나섰으며 새 조국을 창건하고 수호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송두리채 바치였다.

조국이 없을 때 조국에 대한 사랑이 열렬하고 간절할수록 그 사랑은 피맺힌 비극을 빚어냈다. 이런 의미에서 예로부터 조국애를 풍부히 타고났던 조선사람들은 망국노의 설움우에 정신적황무지를 헤매게 되어 2중3중의 불행을 겪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진정한 조국에 대한 리념을 주

시고 혁명전통에 기초한 인민의 참된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조선인민은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을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우리의 참다운 조국입니다.》

주체사상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사조로 전변된 우리 시대에 와서 주체사상이 가장 빛나게 구현된 부강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영예는 세상에 다시 없다.

버드나무 늘어선 동구길에서 가난에 실그러져가는 뜰기고 짓밟히는 고향땅과 고역에 시달리는 고향사람들을 바라보며 빨갛게 불타는 저녁노을속에 내 어린 아이에 안타까이 내려쳐 목마르게 부르고 찾아헤매던 어렴풋한 조국의 표상, 노래소리 처량한 이국의 광야에서 짓밟힌 민족적존엄을 안고 몸부림치던 그날의 가지가지 추억을 들출 때 아버지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조국의 자량이 너무나 고마와 다시한번 소리높이 웨치고싶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고...

이것은 력사의 진리이다. 그러기에 세상사람들은 우리 조국을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인민을 한없이 부러워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하여 우리 조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날을 따라 늘어난다.

바야흐로 우리 조국은 력사상 일찌기 없었던 대번영기에 들어섰다. 조국의 대지는 살찌고 강산은 꽃핀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모든것이 주체의 요구대로 변화발전하고있다. 그속에서 인민의 술기와 재능은 찬란한 개화기를 맞이하였다.

우리 문학 역시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활짝 꽃피여났다. 그러나 창건 30돐을 맞는 공화국과 그에 바쳐진 나의 문학을 생각할 때 그리도 많은 영예와 사랑을 안겨준 조국에 이바지한것이 너무나

적음에 송구함을 금할수 없다.

모든 인민이 태어나는 첫날부터 입을 걱정, 먹을 걱정을 모르고 배움의 권리, 일할 권리, 치료 받을 권리를 골고루 향유하면서 나라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조국을 창건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혁명의 풍운 수십만리를 생각할 때 우리 문학은 아직 어찌하여 이 조국이 그리도 귀중하고 다시 없으며 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지는 것이 무엇때문에 그리도 영예로운것인가를 깊이있게 해명했다고 말할수 없다.

공화국의 품에서 작가로 자라난 나는 조국애의 주체를 많이 취급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많이 그리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룩된것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

그러기에 나는 부강한 조국의 품에 안겨사는 더없이 행복한 오늘에도 조국이 없던 그날의 설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던 지난날의 천대를 항상 머리속에 그리게 되며 주체의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이라는 이 자랑높은 이름을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안겨주시기 위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바쳐오신 로고를 감동적으로 재현해보려고 힘을 다하고있다.

나의 이 노력이 어느 정도라도 성공한다면 그 내용의 심오한 의의와 비상한 견인력으로 하여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보탬을 주리라고 믿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은 남녘땅에 있는 버드나무 늘어진 동쪽길을 걸어 이제는 송기를 벗기운 송림도 느티나무도 다 죽었을지 모르는 고향마을에 찾아갈것이다. 그리하여 황폐화된 그 땅을 두고 아버지 수령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였는가에 대하여, 그 땅을 영원히 인민의것으로 하시기 위하여 주야 휴식도 미루시며 싸워오신데 대하여 나는 새로운 격조를 가지고 소리높이 웨칠것이다.

옛말로 된 세월

김병훈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1980년 오가자에서 활동하실 때, 한번은 동지선달에 찬바람 막을 문 한짝 변변한것을 달지 못하고 사는 한 로인을 찾으시여 로인의 여위고 거친 두손을 잡으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었다.

할아버지, 지금 온 조선이 이 방안처럼 어둡고 캄캄합니다. 온 삼천리강산이 신음하고있습니다. 가슴아픈 일로 가득차있습니다. ... 그렇지만 이런 고생이 옛말로 될 그날은 반드시 올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캄캄하던 그 세월은 인제 아득한 옛말로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어둡고 캄캄한 망국의 그 세상에 묻혀있는 민족의 수난사는 뼈에 사무쳐 잊을수 없다.

나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한가지 추억이 있다.

40년전, 내 나이 아홉살 때의 일이다. 중병에 신음하던 아버지가 덜컥 세상을 떠나자 남은 식구는 줄지에 기둥이 무너진 집처럼 의지가 없게 되었다. 어머니는 형과 나, 셋먹이동생까지 어린 3형제를 업고 이끌고 살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넜다. 악취가 풍기고 숨이 막히는 3등차간은 우리처럼 살길 찾아 북간도땅에 흘러가는 각양각색 사투리의 류량민들로 붐비었다. 두만강을 건는 열차는 국경역에서 멎었다. 류량민들이 쏟아져내렸다. 그들은 여기서 북간도땅 산지사방으로 헤어져가는것이다.

강 하나 사이에 끼였건만 무엇때문인지 그리도 컴컴하고 황막하고 거칠어보이는 낮선 땅, 낮선 거리, 게다가 사나운 눈보라가 역전광장을 휩쓸고 있었다.

고향을 떠날 때는 한창 마가울의 따뜻한 날씨였다. 동네 아낙네들은 마당의 감나무에서 빨갛게 익은 감을 따 어머니의 손목에 매달려 떠나는 불쌍한 우리 형제를 동구밖까지 따라나오며 호주머니속에 찢러넣어주었다. 그런데 여기는 벌써 눈보라가 휘돌아치는 한겨울인것이다.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눈보라치는 이국의 산천과 거리를 바라보는 어린 가슴은 불안과 공포에 줄아들었다. 이렇게 사나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어머니는 형과 나에게 집을 지키고 기다리라고 외견으로 친척별되는 집을 찾아 거리로 들어

갔다.

차에서 내린 수백명 류량민들은 한참동안 역전에서 웅성거리더니 눈보라 사나운 막막한 이역땅에 그래도 어데 갈데가 있는지 차츰 인종이 성글어지더니 한참후에 마당은 텅 비었다. 역전에는 큰 보짐을 지키는 우리 형제와 웬 할아버지와 그의 손목을 잡은 손자인듯한 소년, 이렇게 모두 네 사람만이 남았다. 할아버지도 손자도 별것게 흠물이 든 노닥 노닥 기운 흘바지저고리를 입었다. 조그마한 짐을 멜바를 하여 지고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는 다른 손에 손자의 손목을 잡고 구부정하고 서서 눈보라 날리는 하늘을 빗없는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손자는 내 나이나 될가, 나보다 한두살 아래일가, 귀밀을 덮은 꺼스스한 더벅머리, 굽어서 누렇게 뜬 얼굴, 쫄쫄하게 들린 누데기바지가랭이밀으로 시뻘겍게 드러난 발목, 발에다 무슨 걸레짝같은것을 감고 쥔신을 신었다.

소년은 동동 발을 구르며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뭐라 칭얼거렸다. 짓물린 할아버지의 눈굽에는 진물인지 무엇인지 알길 없는 뿌연 이슬같은것이 글썽하였다.

어슬막에 어머니가 친척네 집을 찾아놓고 데리러 왔기때문에 그들 할아버지와 손자만 역전에 남기고 우리도 거리에 들어갔다.

그런데 며칠후 나는 장거리어구 어느 집앞에 한 손에는 손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에는 귀떨어진 바가지를 들고 우두커니 서있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리고 한 열흘동안 그 가련한 정상을 때때로 거리의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볼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몹시 추운 날이었다. 바람은 없어도 밖에 나서기만 하면 코집을 송곳으로 콕 찌르고 두볼을 칼로 썩 베어내는듯 맵짠 날씨였다.

나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역전을 지나다가 길가의 어느 집 담모퉁이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것을 보았다. 나도 달려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악소리를 삼키었다. 손자를 데리고 걸식하던 그 할아버지가 길가에 시체로 굳어져있었다. 꼬부리고 누웠는데 눈을 홑뜨채 감지 못하였다. 손자는 시체에 매달려 울고있는데 그 옆에

밥찌꺼기 얼어붙은 바가지가 텅굴어있었다.

둘러선 어른들이 눈굽을 누르고 혀를 차며 웅성거렸다. 정거장대합실에서 자다 쫓겨나 여기서 거적매기를 두르고 밤을 지새다가 얼어죽은것이라고 들 하였다.

어데서 나타났는지 순사가 흰 칼집을 번쩍거리며 달려와 발길로 로인의 시체를 툭툭 건드려 보더니 역사쪽으로 갔다. 이윽고 순사는 손달구지군을 데리고 돌아와 시체를 가리키며 몇마디 껌껌거렸다. 손달구지군이 시체를 들어 달구지에 싣더니 그우에 거적매기를 덮었다. 시체는 손달구지에 싣려 어데론가 끌려가고 소년은 달구지에 매달려 엉엉 울며 따라갔다.

그때로부터 40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그러나 언 땅에 눈감지 못하고 텅굴어있던 할아버지의 주검, 뽕뽕뽕뽕 눈길을 으깨며 굴러가던 손달구지, 얼어지며 울부짖으며 달구지를 따라가던 소년의 모습, 아, 그것은 바로 세월이 갈수록 눈굽에 파고들며 골수에 사무쳐오는 어제날의 내 조국의 모습, 그날의 가련한 망국노- 우리 인민의 모습이 아니였던가!

그날은 옛날이 되었다. 그날의 참담했던 내 조국, 짓밟혔던 민족사는 아득한 옛말속에만 남아있다. 체험한 세대도 인제는 잊기가 쉽고 체험하지 못한 세대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옛말로 되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체험한 세대도, 체험하지 못한 세대도 뼈에 새겨두

고 잊지 말아야 한다.

참담한 그날이 옛말로 된것은 오늘과 그날의 그 세상사이에 지나긴 세월이 흘러갔기때문은 아닌것이다. 이 지구우에는 수십년이 아니라 수백, 수천년이 흘러와도 생지옥같은 그 세상을 벗어던지지 못한 민족이 아직 남아있는것이다.

만약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 짓밟힌 우리 조국 망국력사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위대하고 강대한 사회주의 새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긴긴 세월 찬연한 빛을 뿌리는 주체조국의 새 역사를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어찌 그날의 그 생지옥같은 세월을 옛말로 이야기할수 있을것인가!

세상에 돌도 없는 주체의 조국, 자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살며 투쟁하는 행복과 긍지가 넘치면 넘칠수록 잊지 말자. 이역의 얼음땅우에 주검으로 텅굴던 그날의 할아버지, 망국노의 피눈물나는 역사를!

가슴에 부푸는 행복과 긍지를 불타는 충성, 들끓는 열정으로 바꾸어 혁명의 기발을 더욱 높이 받들 어올리자!

통일된 삼천리강산에 오각별 빛나는 람홍색 공화국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이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해 혁명의 한길로 끝까지 줄 달음쳐나가자!

붓을 들고 포화속을 달려

김복원

나는 병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군복을 입고 함께 포화속을 뚫고 조국을 지키는 전호속에서 청춘시절을 값있게 보낸 사람들을 자주 만나곤 한다.

지난봄 혁명의 수도 평양으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을때 그 누군가가 나의 등을 치며 반갑게 찾은 것이었다.

《아, 이거 락동강에서 만났던 작가동무가 아닙니까?》

뒤를 돌아보니 이미 얼굴에 주름이 어지간히 잡힌 체격이 다부진 동무였다.

《누구신지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약목부군에서 락동강을 도하한 첫 보병중대의 중대장입니다.》

그때에야 나의 머리속에는 근 30년이 가까와오는 그 먼날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되었다.

잊지 못할 락동강!

그날에 만났던 짧은 중대장의 표상이 번개같이 엇갈려 눈앞을 스치었다.

《박동무, 이게 몇해만이요?! 엉!》

그와 나는 마주앉아 서로 바라보면서 웃기도 하고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산과 들을 정겹게 바라보기도 하였다.

《작가동무는 그때 어디서부터 남진하는 대오를 따라잡았습니까?》

《저야 물론 평양에서 떠나 동두천에서 따라잡았지요.》

그때 나는 혁명의 수도 평양역을 건설하는 건설장에서 로동청년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내며 조국에 대한 시초를 준비하고있었다.

그러던중 1950년 6월 25일 새벽 러명이 밝아올무렵, 미제와 괴뢰도당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의 불을 질렀다는 소식을 방송으로 들었다.

창조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던 가슴에 원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쇠물처럼 이글거리며 차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남조선괴뢰도당에게 제기하였으나 놈들은 끝내 미제의 부추김 밑에 침략전쟁으로 대답한것이였다.

우리의 영웅한 인민군대는 38선전역에 걸쳐 불의에 침공한 적들을 반격하여 원쑤들의 진공을 좌절시켰을뿐아니라 38선이남지역으로 격퇴하고 웅진, 연안, 배천, 개성을 해방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0년 6월 26일 역사적인 방송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리승만도당을 반대하는 이 전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 헌법을 사수하

기여야 하며 남반부에 수립된 매국적괴뢰정권을 소탕하고 우리 조국 남반부를 리승만역도의 반동통치에서 해방하며 남반부에 진정한 인민정권의 인민위원회들을 부활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성하여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높이 받들고 우리 작가들은 곧 결기모임을 가지였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걱정을 참을길 없는 작가들은 한결같이 전쟁을 도발한 미제와 괴뢰도당을 규탄하였고 붓을 무기로 삼아 전선에 종군할것을 탄원하였다.

이리하여 종군작가들의 대렬에 나도 들어서서 진격하는 인민군병사들을 따라 전선서부와 전선중부, 전선동부의 포화속을 달려나갔다.

대하가 흐르는듯 바다가 넘쳐나듯 노도와 같이 진격하는 인민군대렬과 함께 남녘해방지역인민들의 폭풍같은 환호를 받으며 보무당당히 나아갔다.

때로 우리는 해방지역 인민들속에 휩싸여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하여, 공화국북반부의 인민민주주의 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여주곤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15성상 백두밀림의 눈보라속에서 명활한 전략전술로 일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시고 조국을 해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천대받고 압박받던 남반부인민들에게 커다란 감격을 불러 일으키었다.

우리 인민에게 혁명주권과 보람찬 새 생활을 안겨주시였을뿐 아니라 로동자들에게는 공장을 주시고 농민들에게는 땅을 주신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남반부인민들속에 얼마나 크게 자리잡고있는가 하는것은 대전해방전투를 끝내고 시내인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더욱 절실히 느낄수 있었다.

대전해방을 위한 대포위작전과 관련하여 이 지대인민들속에는 새로운 전설이 퍼지고있었던것이다.

당시 대전에는 《상승사단》이라고 우쭐령대는 미제침략군 24사가 등지를 틀고있었는데 놈들은 유성으로부터 대전으로 들어가는 긴 다리목에 침략무력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이리로밖에 인민군대가 올 길이 다른데는 없다고 하면서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놈들의 후방깊이에 부대를 진출시켜 정면으로 익측으로 공격하는 대포위전을 벌리시였다.

적후에 들어간 아군부대들은 부산으로부터 대전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하였다. 시내에서 얻어맞고 도망치는 놈들을 바로 여기에서 보기좋게 섬멸하는것을 본 인민들은 이 작전이야말로 신출귀몰하고 축지법을 쓰시는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전법이라고 한결같이 말하는것이였다.

인민군대렬을 따라 대전시가에 들어선 나는 한

길옆의 초가집에서 병사들과 인민들이 감격스럽게 상봉하는것을 보았다. 그 집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해방자인 인민군병사들을 맞이했던것이다.

얼마나 기다리던 날이 그들에게 찾아온것인가.

나는 원고지를 꺼내들고 이 사실을 시로 써내려 갔다.

《박동무, 바로 거기서 나는 동무들의 사단에 속한 병사들을 알게 되었소!》

《그렇습니까?》

박동무는 정말 기쁨이 어린 눈빛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서로 직접 알지는 못하고있었지만 그때부터 함께 있는 셈이었다.

대전의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한번 만나보였으면 일생에 한이 없겠다고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대전을 해방한 아군부대는 추풍령밀의 영동을 해방하고 황간의 굴간에 기여든 적을 섬멸한후 추풍령마루에 모르게 되었다.

가을바람이 세차 추풍령인가.

키낮은 소나무가 듽성듬성 서있는 고개마루에 올라서니 삼남지방이 가슴에 안겨왔다.

나는 병사들과 함께 가슴을 헤치고 감개무량하여 생각에 잠기었다.

그것은 이 추풍령을 경계로 하여 앞은 평남땅이기때문이다.

우리의 인민군대가 적을 반격하여 달도남짓한 사이에 서울, 수원, 대전을 해방하고 지금은 추풍령에 올랐으니 얼마나 먼길을 온것인가.

우리는 가슴에 뿜어오르는 혁명적랑만을 안고 옮기는 발걸음도 가벼이 령을 내려 일격에 김천을 해방하고 락동강에 이르렀다.

평남땅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류달리 더위를 느끼었고 여기서 보는 대수도 각별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것이였다. 밤하늘에 금시 쏟아져내릴것만 같은 은하수도, 령우에 내려앉은것 같은 북두칠성도 다정하게만 보인다.

아, 북두칠성이 빛나는 저 하늘아래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혁명의 수도 평양이 있다는 생각이 들자 우리가 나서던 당중앙위원회의 청사가 우연히 떠오르는것이였다.

어둠에 잠긴 락동강 저쪽 대안에서는 원쑤들의 땅크가 굴러가는 소리가 이따금씩 들려오고 탐조등 불빛이 하늘을 쏘고있었다.

나는 부대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척후부대로 도하준비를 하는 중대를 찾아갔다.

달빛이 번뜩이는 물결이 가까이에서 바라보이는 참호속에서 결사전의 길에 오르는 전사들의 룬박이 얼른얼른 비껴 오는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그곳에서 기관단총을 메고 돌격전의 앞장에 오른 중대장 박동무를 만났었다.

잠시후 부대장동무가 오고 전투명령을 받은 대로는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싸움의 수천리길을 병사들과 함께 왔지만 그 순간은 어쩐지 가슴이 불처럼 달아오르는것을 진정시킬수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캄캄한 어둠에 묻혔던 락동강 저쪽 대안에서 기관단총소리가 터져 울리면서 돌격의 만세소리가 이쪽 참호속으로 메아리쳐왔다.

숫구치는 불기둥과 뿌러지는 별찌처럼 튀어오르는 총탄들이 어두운 밤하늘에 비오듯 날아오르는속으로 인민군 전사들이 만세를 부르며 돌격하는 모습이 보여왔다.

나는 전차 214 호를 타고 런대와 함께 사품치는 락동강 물속에 들어섰다.

《락동강, 락동강아, 인민군대가 왔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탄 전차는 대안에 올라서며 원쑤들의 참호를 향해 육박하였다.

나는 웨쳤다.

《미제침략자들아, 보라, 우리가 락동강을 해방하였다!》고.

나의 이 웨침에 호응이나 하듯 락동강의 물결도 소리높이 여울목을 치며 흘러내리는것이였다.

아군부대는 적을 무찌르며 왜관까지 나아갔다. 나는 뿜어오르는 감격을 안고 전호속에 돌아앉아서 시 《락동강 칠백리》를 써서 추고도 없이 평양으로 보냈다.

인민군대가 락동강을 넘어선 이 력사적인 사실을 후방 인민들에게 알리고싶은 마음이 앞섰던것이다.

이렇게 락동강을 도하한 나는 8월말에 다른 방향-전주 남강이 락동강에 흘러드는 지점인 박진나루터 여울목을 타고 다시 도하하였다. 류역 7백리에 걸친 큰 규모의 작전이였다.

구름도 봉우리에 걸려 늪다는 운로봉의 가파로운 산밭을 타면서도 나는 단숨에 남해로 달려가는 기분이였고 48 시간동안 식사를 할 시간도 낼수 없는 그런 속도로 질풍같이 진격하는 대오와 함께 나아가면서도 미제침략군을 잔해에 처넣고 부산을 해방하리라는 생각으로 가슴은 높뛰였다.

그런데 우리는 구포벌-삼랑진-부산이 가까이 바라보이는 그 지점에서 헤어지게 되었던것이다.

그렇게 헤어져 30년이 가까와오는 오늘에 와서 다시 만나 그때의 일을 가슴뜨겁게 추억하고있지않는가.

우리가 탄 렬차는 평양역에 서서히 들어서고있었다.

전쟁전에 건설하였던 역사보다 더 훌륭한 새 역사를 우리 인민은 승리한 조국땅우에 일떠세웠다.

락동강기슭 참호속에서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던 평양의 하늘밑에 박동무와 나는 함께 들어선것이였다.

세월은 흘러 머리에 흰서리가 내렸건만 붓을 들고 포화속을 달리던 그날에 만났던 전사들을 보면 청춘시절이 다시 되살아나군 한다.

조국을 지킨 전사들의 삶은 영생불멸하다!

온 세상은 태양을 노래한다

리 시 균

오늘 온 세계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불타고있으며 충심으로 그이를 높이 우러러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세계인민들의 영광의 노래는 온 세상 모든곳에서 수많은 혁명가들과 진보적 인민들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날을 따라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으며 그것은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만사람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세계인민들의 송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를 영원히 따르며 그에게 충성 다하려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생활감정을 담은 충성의 노래, 영광의 노래로 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의 조국, 천리마 조선에 대한 동경의 노래로, 자주성을 옹호하게 위하여 싸우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의 노래, 창조의 노래로 되고있다.

혁명적 랑만과 열정에 넘치는 세계인민들의 송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절대적인 신뢰의 정을 격조높이 구가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사는 높은 민족적자부심과 끝없는 충성의 걱정으로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세계인민들의 영광의 노래,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주체시대의 송가이다.

만민이 우러러 드리는 영광의 노래는 우리 시대 시인들과 작곡가들뿐아니라 혁명가, 사회활동가들을 비롯하여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이 앞을 다투어 심장으로 부르는 세계인민의 송가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뽐어넘치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세계의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 깊이 간직하고있는 확고한 신조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오늘 세계 진보적시기문학의 항구적인 주제 로 되고있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일류가 낳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혁명하는 세계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는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

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세계 시가문학의 조류로 되고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송가에서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세계혁명을 이끄시는 유일한 령도자》, 《암흑을 끌어버리는 위대한 태양》으로 우러르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사람마다 흠모하고 우러러 받드는 위대한 수령님, 진정 세계인민들은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인류해방의 구상으로 높이 모시고 경모하고있다.

나이제리아의 한 사회활동가는 송시 《**김일성!** 그이는 붉은 태양》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위대하도다, 여기 조선에서 솟아오른 빛나는 태양
그 붉은 태양은 위대하신 그이 **김일성!**
그 빛발 온 세상 압박받는 사람들에게겐 비쳐가고
사람들은 **김일성**사상을 가슴마다에 간직하여라

불타는 태양이 어찌 조선만을 비친다 하랴,
휘황한 그 빛발 어찌 조선만을 위함이라 하랴
그 태양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피압박인민들의 붉은 등대여라

조선혁명의 불길을 지펴준 그 불꽃
오늘은 압박받는 나라마다에서 타오르는도다.
오늘은 멀리멀리 압박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상은 빛발과도 같이 거침없이 비쳐가도다

조선과 온 세상을 비치는 혁명의 붉은 태양!
세계진보적인민들은 뜨거운 그 열도로 지구의 모든곳에 그늘진곳 없이 인류의 마음과 정신에까지 비쳐주는 주체의 빛발을 영양소로 받아안았기에 자연과 사회 앞에 명목적으로 순응하며 노예적 굴종만을 감수해온 지난날과 단호히 결별하고 혁명의 폭풍으로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보람찬 투쟁을 벌려나간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은 싸우는 대륙들에 빛나는 승리를 꽃피워주며 혁명의 거세찬 격랑으로 세계제

국주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어가고있다.

수단의 한 빛은 《**김일성**주석님의 노래》에서 인류해방의 참된 길을 밝혀주시고 모든 인민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만민의 태양》, 《우리의 수령》으로 경모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영광을 드리고있다.

만민의 태양 **김일성**주석님은 우리의 수령
만민의 태양 **김일성**주석님은 우리의 수령
그이는 승리의 한길로 혁명을 이끌어나가시네
그이는 인류의 영원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네
만민의 수령, 그이께 인민은 영광드리네

송가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를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는 바로 여기에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시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송가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핵으로 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그이의 존함과 결부시켜 《**김일성**주의》로 부르면서 《**김일성**주의는 현시대와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유일한 사상》으로 궁지높이 칭송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끝없이 따르고 신봉하며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싸워나갈 열화같은 지향과 열정을 그대로 담아 노래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그 보편성과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대륙과 대양을 건너 지구상의 방방곡곡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외국의 한 빛은 《**김일성**주의는 인류의 찬란한 려명》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레찬하면서 주체사상의 세계적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우리 앞길을 밝히시는
위대한 태양 **김일성**주석님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따사로운 봄과 향기 그윽한 꽃을 주시여
인민들을 자주의 인간으로 키우셨나니
오늘 위대한 태양의 빛발
주체의 찬란한 해살로 퍼져
온 세상 인민들의 앞길을 밝히려

그것은 백전백승의 **김일성**주의
그것은 영원히 꺼질줄모르는 불타는 태양의 빛발
김일성주석님은 위대한 태양
김일성주의는
인류의 찬란한 려명이여라.

지난날 혁명의 지도사상을 못가진 탓으로 력사의 모진 진통을 다 겪어 온 인민들은 피의 체험을 통하여 오직 주체의 기치만이 조국과 혁명을 구원하고 사람답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려는 자기들의 절절한 지향과 념원을 다 풀어주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기치, 시대의 향도적기치임을 확신하면서 오직 주체사상만을 신봉하며 주체의 요구대로 싸워나가는것이다.

인도의 한 시인은 파도소리 음산한 바다를 건느고 가없는 하늘을 날아 저멀리 총성과 죽음을 넘어 싸우는 세계의 벗들이 주체의 빛발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지난날 !
식민지노예의 사슬에 얽매여 신음하던
신흥세력인민들
오늘은
붉은 태양의 빛발아래서
참다운 투쟁의 길
보람찬 삶에 들어서노라
세계의 혁명적인민들
김일성동지께
운명을 의탁하고
주체사상의 기치 휘날리며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따라
승리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간다.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에서)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암흑의 대륙》, 《고요한 뒤동산》, 《세습령지》로 불리우던 대륙들을 자주 의 활화산으로 일으켜세운 주체의 혁명사상이 있기에 혁명의 심장을 지니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송사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세계적사조로, 세계혁명의 공인된 지도사상으로 된다는것을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세상사람들의 심장을 흔들며
굽이치는 거세찬 흐름이 있다
그것은 20 세기의 한복판을 굽이치는 위대한
주체사상 !
그 흐름의 시작엔 샘이 있나니

김일성 원수는 주체사상의 창시자 !

김일성 원수는 천재적인 사상가 !

(《**김일성** 원수 만세 !》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이 송가에서는 수령님을 위대한 사상리론가로서 노래했을까 아니라 세계 혁명의 위대한 전략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 서 높이 칭송하고있다.

인민을 그처럼 사랑하시는분

그이는 어버이수령 **김일성** 원수 !

제국주의를 력사의 심판대우에 올려놓으신분

그이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 원수 !

김일성 원수는 세계혁명의 전략가 !

김일성 원수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

송시에서는 제국주의를 력사의 심판대우에 올려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세계사적업적을 격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심은 미제의 각을 떠내는 수많은 혁명투사들의 심장의 노래로 울려나오고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송가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그를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발전시키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곧 빼앗긴 나라를 찾고 우리 인민의 진정한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그를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한 투쟁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나라로,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위력한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세금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일하고 배우며 누구나 다 무료로 치료받을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조국입니다. 다시말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은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주체의 조국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통성변영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세계진보적인민들에게 빛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참다운 인민의 주권을 세우시고 공화국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무한한 동경과 찬양의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고있다.

달리의 한 사회정치활동가는 송사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혁명의 붉은 기치

오각별 빛나는 공화국기발을

인민의 손에 쥐여주신

김일성 원수님

혁명의 간고한 길에서 40 여년

승리와 승리의 한길을 걸으시며

사회주의강국을 일으켜세우신

혁명의 천재 **김일성** 원수님 !

그러기에 전세계는 경탄의 눈으로

그이를 우러러모시는것이 아니냐

(《위대한 수령》에서)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송사에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자랑찬 면모를 아름다운 시적화폭으로 노래한다.

재더미를 헤치고 솟아오른 기적의 나라 조선

용광로의 쇠물은 창조의 노래를 싣고 흐른다

은빛지붕들은 하늘높이 번쩍인다

이 강산에 천리마시대를 열어놓으신

아아 위대하신 **김일성** 원수!

들 푸르고 물도 푸르른 협동의 들판

천만줄기 물결은 하늘가에 출렁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프락프락 달리는

이 땅에 공산주의농촌강령인 테제를 펼쳐주신

아아 위대하신 **김일성** 원수 !

어린이의 나라, 어린이가 왕으로 된 나라

학생소년궁전은 세상이 꿈으로 그려보던 락원

김일성 종합대학의 높이는 교육제도의 높이

문화의 붉은 꽃이 만발한 나라

세상에서 제일 살기좋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신

아아 위대하신 **김일성** 원수 !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주의 목소리로

세상이 따라걸는 자립의 걸음으로

원썩들이 질겁하는 자위의 힘을 안고

로동당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영웅조선

조선인민의 천재적인 수령이시며

세기를 창조하신 위대한 그 모범으로

세계를 비치시는 혁명의 태양

아아 위대하신 **김일성** 원수 !

(《아아 위대한신 김일성 원수 !》에서)

공화국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은 3분의 1 세기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천지개벽을 이룩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몇백년이 걸려야 했던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전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오늘은 전반적 11 년제의 무교육을 실현하고 온 나라를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문학과 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는 《예술의 나라》로 전변시켰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송가들은 진정한 인민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우리 인민을 부강하고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인민으로 되게 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최대의 경의와 찬양의 감정으로 노래하고있다.

그리고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주체사상으로 빛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높이 솟아오른것도, 세기를 두고 짓눌리며 살아오던 조선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한껏 누리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된것도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의 열매이라고 찬양하고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이 지닌 모든 자량과 영예, 높은 국제적권위는 곧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권위이고 영예이며 한없이 고마운 조국의 품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이다.

아랍의 한 벗은 시 《김일성 원수에 의해 조선은 빛나고 세계는 인류의 봄을 맞으리!》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그이의 령도아래 부강하고
그이의 사랑속에
인민들이 행복한 나라 !
《사회주의성공탑》으로 세계혁명의 보루로
높이 솟아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그것은 조선사람의 자랑이며
또한 혁명하는 세계사람들의 기쁨이여라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에서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모든것은 그 어느것이나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함과 잇닿아있다.

레바논의 한 벗은 《가장 행복하여라, 조선인민》에서 조선인민을 용맹한 사자의 기백으로 침략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는 존엄있는 민족으로 축하하면서 조선이 도도한 기상으로 강산을 뒤흔들며 나아갈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대에겐 신념을 주시고 루지를 주시며 승리로써 당당히 인도하시기때문이라고 노래한다.

외국의 벗이 노래한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세우는 인민을 그 어떤 침략자도 정복할수 없다.

조국통일에 대한 절절한 념원과 확고한 지지성원, 이것은 조선에 대한 송가의 중요한 사상적 지향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임무이며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외국의 벗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리라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위대한 원수님이시여
조선은 예로부터 하나입니다
슬기로운 인민에게 선물하길
당신의 위업은 성스럽고 위대합니다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것입니다

이것은 끼쁘로스의 한 벗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9 톱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드린 노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 그것은 조국의 통일이다.

팔레스티나의 한 혁명투사는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성원을 송가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있다.

존경하며 흠모하여마지않는 수령님이시여
당신께서 그렇게도 열망하심이
남북조선의 통일임을 우리 잘 알거니

우리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찬란한 해발을 우리러
통일의 그날 위해 함께 싸워가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위해
목숨바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것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생명수로 우리 마시며 싸워가고있기에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 혁명적인사를 삼가드리웁니다》에서)

세계의 진보적인인민들은 송가에서 미제와 박정희 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반대하고 조

선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싸우려는 확고한 결의와 지향을 노래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차게 싸워나가는 길에서 천리마의 기상, 속도전의 발걸음으로 조국통일의 광장을 기어이 마련하고야말것이다.

아프리카의 한 사회정치활동가는 송시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을 생각하신다》**에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을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풍모를 이렇게 노래하였다.

이 땅에 지상락원을 펼쳐주시고
평양의 하늘아래 웅장한 도시를 일떠세우시고도
어찌하여 수령님께서서는
밤에도 편히 주무시지 않으시는가?
눈보라치는 깊은 밀림을 헤쳐
백두광야를 지나 험산준령을 넘으시던
《고난의 행군》이 아직 끝나지 않은것인가?!
그이께서 총갈의 숲을 헤치시며
조국을 구원하려고 하신
해방의 그 념원이 채 이룩되지 않은것인가?
지난날 뒤편어지고 가난하던 조국이
오늘은 부강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이 땅에 솟아오르지 않았는가
그 모든것을 다 이룩하시고도
그 모든것을 다 인민들에게 안겨주시고도
편히 쉬시지 않으시며
조국의 미래를 구상하시고
집도 없는 남녘의 동포들을 생각하시며
밤을 지새이시여라.

창밖에 흐르는 별들을 바라보시며
압제자의 쇠사슬에 신음하는 인민들을 생각하시고
싸우는 나라 수백만의 인민들을 생각하시며
깊은 사색의 대양을 헤치시는 수령님!

외국의 벗이 노래한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오직 인민을 위하여, 쇠사슬에 얹매일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언제나 심려하고계신다.

하루도, 한시도 편히 주무시지 않으시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아버지수령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
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광
을 드리고있으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
고있다.

탄자니아의 한 사회활동가는 위대한 수령님께 세

계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열
화같은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조선의 번영을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길이길이 만수무강하십시오
온 세계가 우러르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주석님 만세! 만만세!
(**《김일성**주석님께 축하를 드립니다.》에서)

송가들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이 수령
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열렬히 신봉하며 따르
는 전세계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념원
이라고 노래하고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송가에서 한결같이 인류의
이 간절한 념원과 숭고한 감정을 담아 절절히 노래
하고있다!

외국의 벗들이 쓴 송가들이 그처럼 진실성이 있
고 생동하며 절절한것은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투쟁의 무기로 간직
한 투사들의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정
의 폭발이며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 투
쟁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에서 흘러나온 구체적인
사상감정의 토로이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 영
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
한 확신,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전변된 주체의 조
국에 대한 열렬한 동경과 강렬한 사상정신적충동,
여기에 바로 외국의 벗들이 노래한 송가의 사상적
기초가 있으며 그의 형상적특성이 있다.

만민이 우러러 드리는 영광의 노래, 그것은 인간
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의 토로이며 격동된
심장의 고동이며 뜨거운 열정의 산물이다.

온 세상은 태양을 노래한다.

온 누리에 자랑차게 울려퍼지는 영광의 노래, 그
것은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희망과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신념의 노래로, 온갖 원썩들의
심장을 꿰뚫고 그들을 전몰케 하는 위력한 폭탄으
로, 날카로운 총창으로 되고있다.

온 세계인민들이 공지에 넘쳐 부르는 위대한 태
양의 노래는 시대와 세기를 이어 만사람의 심장속
에서 더욱 힘있게 울릴것이며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노래함으로써 주체사
상으로 살것을 원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고무하는 강력한 투쟁의
무기로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주체의 조국에 대한 심장의 노래

리 수 립

은혜로운 태양을 우러러 온 누리의 마음 끝없이
달려오는 이 땅에 영광의 9월, 공화국창건 서른륙
의 경사로운 명절이 왔다.

하늘에는 태양이 빛을 뿌리고 창공 멀리 노래소
리 울려 퍼진다.

은혜로운 해빛아래 행복 넘치고
창조의 나래 펼쳐 영광 떨치네
아 내 나라 수령님 세우신
주체의 조국이며 찬란히 빛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우
리의 시인들도 조국앞에 영광의 노래를 삼가 드린
다.

돌이켜보면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
지께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을 세우심으로써 식민지동방에 첫 로동자, 농
민의 나라,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을 온 누리에 뿌
리는 사회주의 새조선이 찬란히 솟아올랐다.

공화국의 기치따라 나아감으로써 우리 나라는 3
분의 1 세기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독립되고 존엄
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계의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끝없는 희망과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혁명의 기치로 되었다.

긴긴세월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고 가난만이 차고
넘치던 우리의 조국땅은 오늘 그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졌는가.

참으로 우리 나라는 일찌기 그 류레를 알지 못하
는 일대 룡성과 번영의 새시기를 자랑하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창건 30 돌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
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공화국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살며 일하는 조선공민으로서의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높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조국의 룡성
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해
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사회
주의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의 열정은 우리 시문
학의 기본정서이다.

영광스러운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을 노래하는 시인들의 깊은 사색과 뜨거운 마음
은 오직 한뼘으로 흐르고 모인다.

그것은 이 위대한 조국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
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크나큰 행복과 영광
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대
한 다함없는 감격과 감사의 심정이다.

지난날 세계지도우에서 빛마져 잃었던 우리 조국
이 주체사상으로 빛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
의강국으로 높이 솟아오른것도, 세기를 두고 짓눌
리며 천대받던 우리 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한것 누리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된것도 오
로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와 자
애로운 사랑이 있었기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 시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
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 고귀한 은
덕을 받아안은 인민의 마음을 가슴뜨겁게 노래하고
있으며 아버지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여 주체의
조국을 영원한 번영의 길로 떠밀어갈 인민들의 지
향을 열정다해 노래하고있다.

우리 시문학에서 조국의 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품으로, 우리 인민 모두를 자애로운 사랑으
로 안아키우시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
해주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노래되고있다.

이것은 조국과 인민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힘, 위대한 사랑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시적해명으
로 된다.

시 《내 자라난 사랑의 품이어》(홍현양)는 이
문제에 서정적인 해답을 준 성과적인 작품이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원썬놈들에게 부모를 빼앗
긴 서정적주인공을 친아버이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농장의 어엿한 주인으로까지 키워주신 아버지수령
님의 크나큰 은정을 감격에 목매여 노래부르는 그
진정이 사람들의 가슴을 친다.

인민의 아픔을 고스란히 받아안으시고 그것을 조
국의 상처로 느끼시며 자애깊은 은정을 기울이시여
가쳐주시는 위대하신 수령님.

이 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아버지로 흠모하는
서정적주인공의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진하게 표현
하면서 한 어린이의 운명속에서도 조국을 느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색의 세계를 노래함으로
써 조국을 오늘에로 이끈 그 위대하신 품을 격동적
으로 구가하였다.

서정적주인공인 《나》도, 인민도, 조국도, 모두 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에 안겨 자라났다는 시인의 주장은 개성적이고 구체적인 생활감정에 토대하여 깊은 감동으로 안겨온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노래에서 생활세부를 찾아 형상적으로 잘 써주면 노래의 성격과 양상을 뚜렷하게 살릴 수 있다는데 대하여 가르치고있다.

이 시는 체험된 생활에 철저히 의거하여 서정성을 높이였으며 가장 특징적이고 감성적인 생활세부를 찾아내어 감정조직을 잘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있는가라는 물음심에 철없는 대답을 올리였을 때 그 대답속에서 조국의 상처를 느끼시며 가슴아프게 새기시는 어버이수령님.

자애로운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꽃신을 신고 밤나무숲에서 매미를 쫓으면서도 가시의 아픔조차 모르고 자란 서정적주인공,

후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제는 농장의 주인으로 된 그를 만나시여 만면에 웃음지으시며 맨발 벗은 어제날을 추억하여주실 때 목이 메여 목이 메여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주인공의 모습.

맨발로 자란 나를
한품에 안아주시며
수령님 심려속에 보내시던 그날엔
철부지 웃음밖에 알수 없던 이 몸
다 자란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수령님 환하게 웃실 때엔
목이 메여 목이 메여 울음을 터쳤구나

아, 눈물로 안긴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이어

시를 읊는 독자들도 서정적주인공과 더불어 크나큰 걱정과 뉘우침이며 어버이수령님을 우리러 감격으로 목메인다.

이 시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철저히 체험된 생활의 진실에 기초하여 노래할 때 커다란 서정적힘을 가지고 심금을 울려준다는 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생활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없이는 시의 사상을 본질적으로 드러내며 인간의 정서를 강렬히 충격하는 특징적이고 감성적인 생활세부를 잡아줄 수 없다.

이 시는 또한 골라잡은 감성적이고 극적인 생활세부들을 빈틈없이 구성하여 감정을 조직함으로써 시의 정서를 격동적으로 양양시키고 시의 사상을 높이 승화시킬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노래하는 서정시들에서 생활에 기초하여 서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이 인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잇닿아있고 우리 인민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기때문이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구체적인 생활감정의 탐구가 없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구호를 라렬하여서는 이 주제의 서정시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릴 수 없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시고 유족하고 더욱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기울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과 배려를 인민의 충성의 마음 담아 노래하는 서정시들에서도 생활적인 정서를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형상적과제로 나서고있다.

시 《창밖에 비가 와도, 눈비 내려도》(김석주)나 《조국땅우에 밤은 깊어가도》(구희철)는 이러한 과제에 성과적인 대답을 준 시편들이다.

《조국땅우에 밤은 깊어가도》는 위대한 수령님을 또다시 국가주석으로 높이 우러러 추대한 경사의 날, 수억만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주적인 삶을 꽃피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품에 대하여 가슴깊이 새기는 인민의 잠들지 못하는 마음을 그윽한 정서속에서 형상하고있다. 또한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는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낮에 밤을 이어가시며 눈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헤아릴 길 없는 로고에 대하여 생각하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노래에 담고있다.

이 두 시편은 제각기 형상의 특색을 가지면서도 한결같이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사는 인민들의 감정의 진실을 노래하는데 성공한 좋은 작품들이다. 인위적이며 추상적인 설정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감정의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계기를 타고 시대적감정을 생활정서적으로 펼쳐고있는 여기에 이 시편들의 형상적위력이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항용 날씨가 꺾어지면 길 떠난 귀중한 사람들의 신변을 생각하고 걱정하였다. 시인은 인간감정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표현속에서 우리 시대에 새로이 나타난 시대적감정을 포착하고 그것을 파고들어 전형적인 체험을 창조하는데 성공하였다.

시는 생활적인 정서속에 깃든 시대적감정, 다시 말하여 인민의 마음속에 언제나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자리잡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충성의 감정을 발견하였으며 그것을 우리 시대인간들의 새로운 생활정서로서 노래하였다.

하기에 시가 담고있는 정서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인민의 땀과 땀수 없는 혈연적누대의 뚜렷한 모습이 아로새겨져있다.

《조국땅우에 밤은 깊어가도》는 밤이 깃들어 하늘에 별들이 돌아날 때면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하고 외우며 빛나는 별무리에 마음을 실

어 아름다운 새 세계를 지향하던 인간감정의 그 순
결한 세계를 진실하게 깔고있다.

이 절절하고 깨כות 정서속에서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영생의 별
로 빛나는 이 땅의 수천만사람들의 다함없는 마음
을 진실한 감정으로 승화시켰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수령님의 혁명전사
로 되어 자주적인 삶을 별처럼 빛내고있는 혁명
전사로 되어 자주적인 삶을 별처럼 빛내고있는
인간들의 구체적인 생활모습을 안받침하면서 시의
사상은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바다우에 생활적인 상
징으로 마무리진다.

어디서나
그 누구나
받아안은 그 은덕 하늘같이 커서
밤깊어도 잠못들고 생각에 잠기는가
우리 이름 별처럼 빛내주시고
우리 희망 은하처럼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품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하늘 !
.....

오신길 만리에
별을 따라 수놓아 드리고싶고
가실 길 만리에
은하를 주단처럼 깔아드리고싶은 마음
.....

저 하늘의 품에서
언제나 별들은 빛을 뿌리고
어버이수령님 사랑의 품속에
영생의 별로 인민은 빛을 뿌리리

우리 인민의 정치적생명의 상징인 별과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품을 비긴 무한대한 저 하늘, 또
하늘과 별이 하나로 어울린 이 참신한 생활적상징
은 시의 사상을 그 얼마나 효과적으로 담고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크나큰 정서적감흥에 잠기
게 하는가.

시대적체함을 담은 전형적인 생활정서는 특히 시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에서 훌륭히 노
래되고있다.

창밖에 비뿌리고
날이 저무니
가슴가득 떠오르는
수령님 생각

오늘은 어느곳에 계시는가
밤비를 맞으시며
그 어느 령길을 넘고계실가

그 어느 들길을 지나실가

비가 오고 눈내리는 곳은 날이면 우리 인민 모두
는 한결같이 현치지도의 길을 걸으시는 어버이수령
님을 생각하면서 수령님의 로고를 덜어 드리지 못
하는 안타까움으로 목메여한다.

이는 실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활감정에 대한
진실한 해명이며 우리 시대의 인민적감정의 정수를
표현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마음속에 인민이 있고 인민의 마
음속에 항상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신다는 시대생활
의 진실이 하나의 구체적인 정서적계기속에 참으로
훌륭하게 집약되었다.

이 하나의 정서화된 형상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인민의 하나로 뭉친 정치사상적통일의 숭고한
높이가 그 어떤 백마디의 말보다도 더 힘있게 울리
고있다.

시는 정서적계기를 인간감정의 진실에 기초하여
설정하였을뿐아니라 시의 감정을 후반부에 이르러
한계단 더 심화시켜 펼치였다.

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로고를 헤아리는 인민의 마
음은 비 오고 눈 내리는 그 순간에만 찾아드는 순
간적인 감정이 아니며 그들의 마음속에 항시 자리
잡고있는 다함없는 감정의 발현임을 생활적인 대조
를 통하여 감명깊이 전달해준다.

아, 찬비속에 안고오신 사랑이여서
받아안은 사랑이 이렇듯 뜨거웁고
찬눈을 맞으시며 안겨주신 행복이여서
누리는 행복이 이렇듯 눈물겨운가

그래서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 수령님 생각
행복한 순간이면
행복에 겨워 수령님 생각

곳은 날에 느껴진 그 간절한 심정은 좋은 날, 행
복한 순간으로 폭넓게 확증시킨다. 좋은 날, 행복한
순간에 이르러 더더욱 인민의 가슴속에 사무쳐오는
간절한 마음 고난과 시련을 한몸에 안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에 대한 고마움을 천만분의 일
도 감지 못하는 인민의 끝없는 심정은 정황과 시련
속에서 더욱 생활적으로 강조되어 노래하였다.

시는 또한 인민의 마음속에 출렁이는 정서의 물
결을 7.5 조의 음수절을 다양한 시행조직으로 변형
시키는 방법으로 효과있게 표현하였으며 시행을 반
복하는 수법, 하나의 시행안에서 여러번의 굴절을 주
는 수법, 하나의 시행안에서 여러번의 굴절을 주
는 수법, 함축과 생략의 수법들을 효과적으로 활용
함으로써 운율을 잘 살리였다. 이것은 이 시인이 시

적언어표현의 인민적유산에 발을 붙이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리용하는데 주목을 돌림으로써 서정미가 풍기는 시를 창작하기 위하여 애썼음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흠모의 마음 담아 노래하기 위하여 시인들은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깊이 파고들어야 하며 그것을 구체적인 생활정서로 표현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생활을 떠난 감정, 주정은 아무리 잘 그렸다 하여도 소용이 없다.

생활에 기초하여 사상감정을 펼쳐나가며 구체적인 개성적인 생활감정을 노래에 담으며 감정의 생활적흐름 그대로 운률적인 형식을 부여하는것은 인민의 심장에서 샘솟아오르는 흠모의 노래, 충성의 노래를 짓기 위한 서정적형상의 근본요구이다.

오늘 우리 시인들은 번영하는 조국의 나날에 발을 붙이고 자기의 애국적감정을 생활의 다양한 측면과 계기를 통하여 파고들어 특색있게 노래하고있다.

어떤 시인들은 조국의 레사로운 나날이 가지는 의의를 깊은 사색과 높은 지성으로 노래하고있으며 다른 시인들은 격동적인 사변들로 들끓는 조국의 매일매시각을 뜨거운 열정으로 받아들여 노래 부르고있다.

조국에 대한 노래들이 아무리 시적계기와 서정적 일반화의 방식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 정서는 생활에서 탐구되고 파악된 론리와 철학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있으며 이로부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주체 조국의 공민된 끝없는 행복과 영광,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으로 도도히 굽이쳐 흘러가고 있다.

시 《빛나라, 주체의 조국이어》(정문향)에는 언제나 무심히 바라보던 조국의 높고 푸른 하늘과 풍요한 땅을 새라새로운 생각에 잠겨 걸으면서 고마움에 젖어 목메이는 시인-서정적주인공이 서있다.

그는 이제 레사로와 평범하게 조차도 느껴지는 나날속에서 자기가 안겨사는 어머니조국의 품에 대하여 사색하며 다시 또다시 조국의 위대함에 대하여 심장에 새기고있다.

시형상의 기초에는 폭넓고 깊이있는 철학적사색이 놓여있다.

시인은 조국이 지나온 유구한 력사의 흐름을 거슬러오르기도 하고 조국의 오늘이 가지는 의의를 력사적인 시점에서 깊이 분석하기도 하면서 끝없이 가슴 울렁인다.

캄캄한 세기의 절망속에서 암흑의 세월만이 흐르던 강토, 안개 낀 유럽의 하늘밑에서 애국렬사들이

배를 가르며 불려도 대답없던 그 이름은 조선이었다. 이 쓰라린 력사를 밀어내시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체의 기치를 추켜드시고 불비속에서, 폭풍속에서 길을 여시였으며 인민의 위대한 승리를 이 땅우에 처음으로 기록하시였다.

시인의 폭넓고 깊이있는 사색은 생활의 력사를 철학적으로 분석 일반화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독창적인 시적해명에로 이른다.

온 세계가 우러르며
노래하고있어라
하나의 사상과 리론으로 밝혀지고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진 나라
.....

아, 눈덮인 백두의 아아한 메부리
이 땅 그 어디나
수억만 인류의 창문가에
주체의 성산으로 승엄히 솟아오르고
동트는 동해의 해돋이가
자주세계의 눈부신 아침이 되여
누리에 빛나는
주체의 조국, 조선이어!

우리 수령님 계시여
궁지높은 민족의 존엄으로
조선은 이렇듯 빛을 뿌리고
우리 수령님을 모시여
세계의 주인된 존엄있는 인간의 목소리
이렇듯 력사우에 높이 울리나니

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민족이 영광을 떨치고 우리 인민이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존엄을 자랑하는 주체의 나라가 솟아올랐음을 심장으로 열렬히 노래한다.

영광으로 빛나는 주체의 나라, 이것은 조국에 대한 시인의 깊은 사색의 열매였으며 가슴에 받아안은 걱정근원이였다.

시인은 우리 조국의 오늘과 그 위대함을 력사의 흐름우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사색하고 철학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여 이 위대한 나라를 조국으로 가진 공민으로서의 끝없는 행복과 영광에 휩싸이며 크나큰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에 넘치는것이였다.

이 조국송가는 조국이 걸어온 력사와 위대한 전변에 대한 생활적이며 철학적인 분석에 뿌리박고 궁지와 자부의 열정을 양양시킴으로써 힘있는 설득력과 강렬한 정서적힘을 얻고있다.

평범한 나날의 깊이 있는 사색의 세계를 타고 울리는 조국의 노래와 함께 번영하는 조국의 격동적인 사변들을 체합하는 시인들의 열정속에서도 조국의 노래는 울려나오고있다.

우리 조국의 나날은 주체의 기치밑에 천리마의 기상으로 세기를 주름잡는 기적과 혁신의 나날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대륙과 대양을 넘어 찾아오는 사절들과 대표들을 맞고 보내는 새 력사의 벽찬 나날이기도 하다. 조국의 나날을 이러한 측면과 제기를 통하여 체험하는 시인들은 현실이 주는 걱정을 받아안고 조국의 위대함을 열정에 북받쳐 노래한다. 조국땅우에 굽이치는 강렬한 혁명적열정을 안고 조국의 노래를 지은 작품들 가운데는 시 《나의 조국, 나의 평야!》(조태현)도 있다.

은혜로운 태양을 우리러 온 누리의 마음 끝없이 달려오는 조국의 나날, 이것이 시의 정황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 사절들이며 민족해방의 총검을 높이 든 투사들, 항쟁의 거리에서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조국, 우리의 평양!

손님맞이 손님 환송으로 날마다 흥성이는 조국과 평양을 시인은 노래한다.

시인은 벽찬 현실을 가슴뜨거이 호흡하면서 조국의 나날이 어찌하여 이토록 삶의 기쁨, 창조의 활력에 넘쳐 날마다 명절로, 노래로 되고있는가를 밝히었다.

시인은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수많은 나라 사절들과 대표들의 마음을 걸쳐 세계적인 판도우에서 그것을 노래하였으면 주체조선의 세계사적위치에 대하여 정열적으로 주장한다.

일어서는 거리, 들에 영그는 곡식
세상만민이 다 알고
하나의 가극, 집단체조 화폭이 펼쳐져도
은 세상의 경사로 되는 나라

식민지였던 지난날엔
업수이 여기는 사람들뿐
오라는곳, 반겨주는 이
웃으며 찾아오는 사람 없더니

아, 오늘은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있어
손님을 맞이하고 떠나보내는 경사로
날과 달이 명절인
나의 조국, 나의 평야이며!

이것이야말로 번영하는 조국의 생동한 모습을 한 가슴에 안은 생활의 노래이다.

예로부터 집안이 번창하면 손님이 많다고 일러왔거늘 날마다 시각마다 환영과 환송으로 설레이는

조국의 모습은 그대로 룡성하는 조국의 노래가 아니겠는가!

이 시의 기초에는 사랑하는 조국을 세계의 한가운데 세우고 그 세계적지위를 밝혀내려는 힘있는 론리가 뻗어가고있다. 이 생활의 론리우에서 시의 열정은 힘있게 나래친다.

지난날 세계지도우에서 빛마져 잃었던 조국이 오늘은 주체의 조국으로 되었음을 심장에 뜨겁게 느끼고 온 세계를 향해 자랑높이 노래한 이 시의 사상감정에는 사회주의조국의 은덕에 대한 진실한 체험이 흐르고있다.

우리는 여기서 조국을 노래한 시인들이 가져야 할 한없는 영예와 자랑, 긍지와 자부심도, 그 바탕에 자리잡고있는 론리성과 철학성도 모두가 어머니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의 열정으로 줄기차게 관통되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의 열정-이것은 조국 송가의 사상과 감정의 기초에서 작용하면서 그 모든것을 하나의 불덩어리로 달구어 터뜨리게 하는 활력이며 원동력이다.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맥맥히 흐르지 않는 조국송가를 생각할수 없다.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의 열정, 그것은 오직 자신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주인의 위치에 튼튼히 세우고 언제나 그 시점에서 사상감정을 뜨겁게 불태우는 참다운 애국자, 참다운 공민의 심장에서만 타오를수 있다.

조국과 자신을 언제나 한덩어리로 생각하며 투쟁하는 그러한 애국자만이 참다운 조국의 노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일관된 혁명적서정시를 지을수 있다.

우리 시인들은 주체의 조국을 세워주시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었으며 세상에 부럽없이 행복한 삶을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조국의 품, 아버지의 자애로운 품으로 노래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에 충성 다할것을 신념에 찬 진실한 목소리로 시대앞에 열렬히 호소하여야 한다.

심장의 노래, 생활의 노래만이 인민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30 뛴을 뜻깊게 맞이하면서 시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와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종가와 서정시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충실성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